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일들이 더욱 비밀비재하게 일어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려워져만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안주를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레위기 11장 4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3월 20일 (토) 제 18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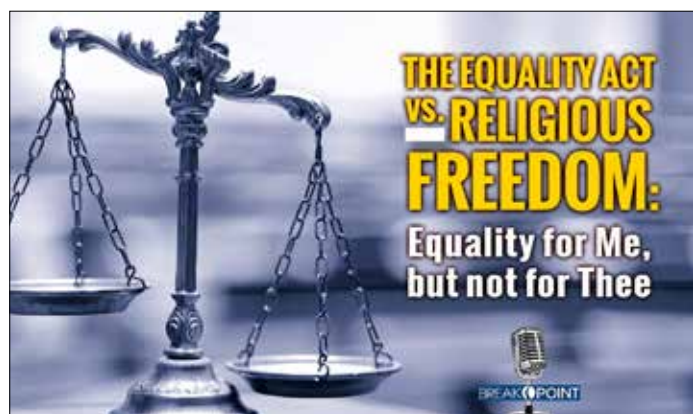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침해 평등법 반대!

‘2021 민주당 주도 평등법 입법’ 성소수자 차별금지 vs. 종교의 자유 ‘더욱 혼란

바이든 행정부의 평등법은 ‘차별 없는 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평등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묻지마’ 진정이나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더욱 확대되고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평등법은 종교단체, 종교교육, 종교적 양심의 측면에서 수정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한다. 특히 동성애,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이룩한 가정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결혼으로 믿는 크리스천의 종교적 양심에 배치됨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비판을 차별로 규정하고 민형사제재를 가하는 평등법은 크리스천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의회에 상정됐던 평등법은 지난달 2월 25일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지난 3월 3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에 의해 상원에 상정됐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를 상징하는 평등법과 종교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Ashers Bakery’ 사례나 미국의 ‘MASTERPIECE CAKESHOP’ 사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위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영국 대법원은 2018년 동성애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동성결혼 지지’라는 문언을 넣은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이므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했고, 미국 대법원도 2018년 다소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동성결혼 축하파티에 사용할 케이크 주문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종교의 자유

쪽에 우위를 두는 기념비적 판결을 했다.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판결들은 민주당 주도의 평등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엔조약).

현재, 전 세계에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돼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195개의 국가가 있고, 이 중에 고용,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교육, 상업시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한 국가는 약 35개국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동 법안 입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추세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 미국 등 각국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종교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될 때, 그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가 됐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길거리 전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미국의 반동성애 지도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유럽, 북미의 교회들이 반성경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놓고 유럽 각국의 교회와 북미의 교회들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돼 일치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반동성애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동성애 반대 교회 사역기관 트루스 익스체인지(Truth Exchange)를 운영하는 신학박사 피터 존스(Peter Jones)는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대해 서구교회가 대응하면서 찬반으로 그 세력이 분열된 것이 대응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고난주간/ 초대시

십자가



강태광 목사 (시인, World Share USA 대표)

초라한 마구간에서 시작된 십자가 일생

나사렛 목공실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셨던 십자가 여정

겻세마네 동산에서 툭툭 떨어진 땀방울에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가 선형

세마포 대신 모옥과 수치입고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 올라 무거운 십자가 내려놓으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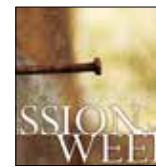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커다란 더하기표로 골고다 언덕에 섰다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박장호 목사



“그대 너 거기 있었가?” 2021년 고난주간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일서적/백트랙서/성구/성화/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book-usa.com / cjb@1919.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예수 나를 위하여...

그가 짊어지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짐을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www.gracemi.com
2021. 3. 29(일)~4.2(금) 새벽 5:30, 4.3(토) 새벽 6:00
강사: 한기홍 담임목사 |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OC 교회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시간: 4/4(주일) 5:3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 본당

주일예배 안내
1부7:30am | 2부9:20am | 3부11:30am | 4부2:00p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시간	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San Diego Radio Korea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KCBS Chicago AM 1590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08:30(주일) 오전 08:00(주일) 오전 12:00, 9:00(주일) 오전 04:00(월요일) 오전 04:30(화요일) 오전 08:00(화요일) 오전 10:20(수요일)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Radio Seoul AM 1650 미주특별방송 AM 1190 CTS TV 한국(금) Radio Seoul AM 1650 JSTV 미국전역 CH 668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 GKCTV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SON Ministry(GMAN Radio)	오전 09:00(금요일) 오전 05:30(금요일) 오전 11:30(금요일) 오전 05:00(한국시간) 오전 06:30(토요일) 오전 04:00(토요일)
------------------------------------	--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www.gracemi.co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발행인 칼럼

그대가 왕이라 치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대가 왕이라 치자. 화려한 왕궁과 멋진 왕실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매일 진수성찬을 차린다 치자. 그 왕궁 그 식탁에 누군가 초대할 수 있다고 치자. 누구를 초대하겠는가? 왕의 명성에 걸 맞는 그리고 그 왕실에 들어 오기에 적합한 인물들을 찾지 않겠는가. 초대장을 이상한 데로 보낸 왕이 있었다. 초대 대상의 이름은 로드빌에 사는 "므비보셋" 그리고 초청인은 예루살렘 왕궁에 사는 "다윗 왕"이다. 로드빌은 어디인가. 사람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황량한 장소이다. 므비보셋은 누군가. 다윗 왕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절름발이 손자였다. 므비보셋은 다윗 왕의 손에 죽어도 열두 번 죽어도 말 못할 처지였다. 그런데 므비보셋은 다윗 왕의 초대를 받았고 그의 식탁에서 매일 왕자처럼 먹었다. 아무리 다윗의 마음이 넓다하여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대가 다윗 왕이라 치면 므비보셋 같은 이를 평생 왕의 식탁에서 마주 앉고 싶겠는가.

있다.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다. 초대받은 자들을 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목마르고 돈 없는 자" "눕어지고 쓰러진 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 초청인은 누구인가. 놀라지 마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너그럽기로는 견줄 이가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왕들 중에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초대하기에 그럴듯한 자가 뻥뻥한 자들이 준비한데 이 무슨 일인가. 참모 중 누군가 실수로 잘못 만든 명단이 아닌가. 아니다. 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명단이다. 그가 천국으로 초청한 이들이다. 그들에게 무한 제공되는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들이 눈길을 끈다. 그대가 왕 중의 왕이라 치자. 이런 이들을 초청하여 가장 좋은 음식을 끝없이 제공하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 먹고 싶겠는가.

아무튼 천국에서 이제 왕의 잔치가 시작되려는 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그 중에 누군가를 결박하여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궁금해 한다. "나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초청인이 그를 향해 일갈한다. 감히 이 자리에 마땅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쫓겨난 그이만 다르기는 달랐다. 비록 그 자리에 초청 받은 이들이 출신은 다양하고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이들이지만 다들 입고 있는 옷은 달랐다. 도대체 무슨 옷일까. 어떤 예복이란 말인가. 다음 기사에서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인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 같이 씻어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옷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옷이다. 초청과 예복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둘러보니 하나님의 초청에 무심한 사람들이 꽤 있다. 머잖은 곳에 실컷 놀 수 있는 깨끗한 바닷가가 있는데 시궁창에서 뿜고 노는 것에 만족하는 아이들처럼 하늘의 준비된 왕의 식탁보다 이 땅에서 제한된 재료로 자기가 차린 형편없는 밥상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대가 초청자라 치자. 정성껏 준비한 잔치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속이 타겠는가, 안타겠는가.

가짜뉴스는 영혼을 피폐시킨다!

TGC, D.J. 마로타 목사가 전하는 뉴스의 해악과 극복 노하우 소개

"대부분의 뉴스는 조치가 불가능하다. 당신이 뉴스를 접한 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 사역하는 D. J. 마로타 목사는 뉴스가 주는 해악에 관해서 강력하게 권고한다. 바로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짜

뉴스가 만연된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고 오히려 뉴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News as Spiritual Deformation).

평소에 알고 지내는 목사 아무에게나 이 질문을 던져 보자. "교회에서 제자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뉴스요."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교인들에게는 이제 각자가 선호하는 뉴스 미디어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목소리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뉴스는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까지 알려줍니다. 뉴스는 이제 아예 성경과 기독교 신앙, 또 교회까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를 알려주는 렌즈가 됐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아마도 다 음 말에 동의할 것이다. "네, 자극적이고 심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특정 미디어만을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뉴스의 영향을 받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 다시 보기

뉴스가 매력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뉴스 콘텐츠는 우울

하고 끔찍한 소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런 뉴스를 보고 또 보는 걸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대부분의 뉴스 미디어가 일종의 영지주의적 복음이라는 것이다. 영지주의는 2세기에 유사 기독교로 시작됐다. 교부들은 즉각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판정했는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가르침 대신, 특별한 신비적 지식이나 밀

스는 이제 에텐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던져진 유혹의 연장선상에서 작동한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편재하고 전지하시므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관리하신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단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대의 뉴스미디어

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속에는 내가 신과 같이 됐다는 환상이 숨어 있다.

조치 불가의 뉴스

대부분의 뉴스는 나쁜 소식이다. 지진, 허리케인, 살인, 그리고 스캔들. 또한 대부분의 뉴스는 조치가 불가능하다. 당신이 뉴스를 접한 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럼 조치가 불가능한 나쁜 뉴스들을 자주 들어서 당신 속에서 생기는 결과는 뭘까?

△분노: 하루 24시간 내내, 마치 소방 호스의 물처럼 연중무휴 당신 속을 파고드는 사악한 뉴스는 결코 당신의 얼굴에 평화와 만족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조치불가 뉴스가 아닌 지역뉴스를 듣고 행동하라
동네뉴스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기회 제공

교적인 통찰력을 믿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식의 특별한 통찰력이 오늘날 뉴스가 제공하는 것이다. 뉴스미디어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내부 특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을 이제 바로 무리가 아니라 진짜를 깨달은 소수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제시한다. 이제 인간이라면 지역을 초월해 글로벌한 존재가 돼야 한다. '무지'라는 어둠을 뒤로 하고 '속보'라는 빛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신경 쓰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이런 메시지에는 중독성이 있다. 우리가 뉴스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대

단지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무력감: 고칠 수 없는 문제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의 뉴스를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당신 속에서는 심각한 무력감이 자라나게 된다.

△분노: 내면에 도덕적 낙침반을 가진 사람이라면 뉴스를 보며 분노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당신 속에는 불의를 볼 때마다 정의감이 주는 분노가 생긴다.

△미움: 분노는 마치 곡물을 발효할 때 증발하는 알코올과 같다. 그 알코올을 증류해서 조금씩 병에 담게 되면 그 결과는 증오로 가득한 마음이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조식 위염, 마장염, 식도염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출법 비대식 내시경 시술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Zoom 구약성경일독학교
어? 성경이 읽히지 않아요!
이매실 대표의 '어? 성경이 읽히지 않아요!'를 성경읽기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원하게 읽혀드립니다~
개강 날짜 및 시간: 2021년 4월 7일 ~ 6월 30일
강사진: 김덕수 목사, 김소연 사모, 홍에스더 전도사, 정인주 전문강사, 나미선 전문강사, 김미경 전문강사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침해 평등법 반대!

(1면에서 계속)
 이어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대응한 교회의 신학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로 분열된 것에 있고, 자유주의신학 일부 분파가 동성애 옹호신학인 쿼어신학을 정립하며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적극 동조하는 입장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성전환자의 권리와 타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때, 동성애자·성 전환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일으킨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는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신앙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이 모두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적지향'을 '종교'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평등법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로 치열한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북부의 약 19개 주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주법으로 제정된 반면에, 바이블 벨트로 불리는 남부의 약 21개 주에서는 이에 대응해 '종교의자유회복법'이



입법됐다. 나머지 주의 주 의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측과 종교의자유회복법 입법을 원하는 측 사이의 충돌 없는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 유럽과 북미 및 미국 교회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런 악법이 미국 사회전반과 특히 종교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교단과 종교계와 일반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평등법을 잘 알고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는 영혼을 피폐시킨다!

(2면에서 계속)
 그렇기에 뉴스를 많이 보거나 읽는 크리스천들은 대개 사랑이 아닌 이웃에 대한 미움을 품기 마련이다. 관음증적이고 어찌 할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접한 영혼은 아예 변형돼버린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좋게 볼 때) 무지한 자, 또는 (최악의 경우) 악한 자의 강력한 무리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작지만 영웅적이며 소수에 불과한 선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다시 물어보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뉴스를 자주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온 뜻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쓸데없는 것이다.

지역뉴스를 선택하라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예 발을 빼라고요?"

아니, 정반대다. 뉴스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의 참여환상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현실의 사람들과 더불어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영향을 끼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당신은 결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는 바로 당신이 사는 지역사회 속에 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역뉴스다. 지역뉴스라는 것은 내가 사는 도시 또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역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hyper local)'를



말한다.

△암에 걸린 이웃에 관한 뉴스 △첫 아이를 낳은 이웃에 관한 뉴스 △실직한 교인 뉴스 △처음으로 교회에 온 아는 사람 뉴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뉴스다. 이런 뉴스는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할 기회

를 준다. 같은 인간으로 함께 웃고 울도록 만든다.

이런 지역뉴스에 반응할 때 우리 속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난다. 불안이 자신감으로, 무력감과 분노, 미움이 기쁨과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당신은 이런 지역뉴스를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이런 뉴스를 만나려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어떻게?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이다.

[정정] 본지 1817호 1면 "미주 한인교회 정기총회 교단별 일정 발표" 제목의 기사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취 목사) 정기총회 날짜를 5월 18일과 19일로 바로 잡습니다.

시론

범 내려온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의 주일예배가 실제적 영향을 받기 시작한지 1년이 되었다. 신조어(新造語)가 된 '대면예배', '온라인예배'와 같은 말들이 통용되기 시작하고, 이미 오래 전 추억과 같은 모습인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풍경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도 신학적 합의가 되지 못한 가운데 1회용 '포도주와 빵'으로 화면 속 목회자의 안내에 따라 혼자 거행하는 성찬식을 갖거나, 성찬식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한 교회도 한둘이 아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봄이 왔고, 바로 앞에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다가와 있다. 그야말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몸으로 경험해온 1년, 부활은 주님재림하실 때 일어날 미래적 사건인 동시에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부여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가르쳐온 교회가 과연 팬데믹으로 인한 섣다른 1년 만에 부활을 맞볼 수 있을 것인가.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15일, 섣다른 1년을 맞아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지난 1년간 LA카운티에서만 2만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1994년 노스리지 지진 당시 57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매일 60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난 1년 365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었다며 침통해했다. 이번 주부터 행정규제가 완화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풀기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체와 함께 영혼을 다루는 교회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각자 스스로의 신앙에 물어보고, 우리가 믿어온 신앙에 물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연히 이날치밴드라는 팀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범 내려온다'라는, 한마디로 '비밀밥 밴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날치밴드는 장영규라는 음악가를 중심해 1995년부터 퓨전국악의 모습으로 활동한 락밴드 심상이 모체가 된 밴드이다. 그 후 세월이 흐르고 2년 전인 2019년 5월 '이날치밴드'라는 이름으로 이태원에서 가진 '들썩들썩 수궁가'라는 단독공연 이후 계속된 온라인 공연은 'Feel the Rythem of Korea'라는 주제의 이른바 조선힙으로 소개되면서 3억부 이상의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교회의 부활을 말하다가 갑자기 웬 밴드이야기인가? 교회가(목회자와 교회리더들이) 밴드음악인들의 생각만큼이라도 깊고, 넓고, 멀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치밴드가 판소리 '수궁가'의 '범내려온다'를 이 시대에 절묘하게 접합시키고, 그 속에서 시대정신과 문화의 흐름을 회복해내었듯이 교회에 내려온 범은 과연 무엇이며 교회는 그 범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밴드리더 장영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음악을 섞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리듬이 있다. 그건 장르로서의 리듬이 아니라 소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리듬이다. 그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나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다.... 판소리 리듬은 규칙이 없는데 또 규칙이 있다." 이러한 음악세계를 펼쳐온 장영규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재질과 성분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며 지내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글을 쓰면서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를 다시 들어보고, 판소리 수궁가의 이 부분을 찾아 들어봐도 범이 왜 내려오는지, 범이 내려와 무엇을 했다든지, 범이 내려옴으로써 마을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하는 이야기는 없다. 그냥 범의 발톱, 입, 귀, 꼬리, 털 그리고 어흥 소리가 어떻다는 표현을 하며 그 범이 내려온다고 반복할 뿐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섣다른 예배모임의 중단 등 새로운 경험 속에 지내는 1년을 돌아보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 시대에 전통적인 판소리로 수궁가(수궁가를 들려주면 듣고 있었을까?) 이날치밴드는 역사 속에 누워있던 판소리를 오늘 다시 살아서 판을 흔들어놓았다. 교회가 가지고 지켜온 신앙의 전통은 빛나는 황금잔에 받아놓은 물이 아니라 끓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지만 원래부터 나오던 옛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샘물 뜨러가기가 귀찮았으나, 샘물받기에 조금해졌다. 교회는 나름마다 듣드하고 안전하며 녹슬지 않는 수도파이프를 연결하기도 하고 멋진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맛있고 영양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도 달아놓은 편리하고 멋진 모습이 된 것인가. 교회의 담론이 대면예배와 영상예배의 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범을 마주할 수 없을 것이다. 범은 한민족 가운데 무서운 존재를 넘어서 민족 가운데 친구로 들어와 어울려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무서워만 하고 있지 않은가.

1년 전 온 세계와 교회를 강타한 무서운 범, 코로나19!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이 찬송은 '범 내려온다'는 판소리처럼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며 한숨짓고 있는 오늘 교회에 이날치밴드의 '범 내려온다'가 들려온다.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던 판소리가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삶을 흥얼거리게 하듯이 교회도 두려움을 데려와 기도가 되게 하고, 노래가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론의 기독교가 아니라 실제(實在)의 기독교임을 드러내는 계기였음을 보여주는 섣다른 1년 후의 새로운 교회로 세상 앞에 서는 위풍당당함을 기대해본다.

djlee7777@gmail.com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예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문 한문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영 어 :	_____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한국 목사 한 분이 토론토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무슨 용기가 났던지 캐나다 농촌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초빙한

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연로하신 어른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

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사모님하고 같이 오실 것입니까?' '그럼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늘 함께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원로들의 대답입니다. '전전 번의 목사님은 싱글로 혼자 오셨는데 같이 오신다면 너무 너무 좋은 일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 되시면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 다닐 것입니까?' 이 또 무슨 황당한 질문인가? 너무 의아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참으로 기상천외했습니다. '먼저 번의 사모님은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 늘 함께 합니다.' 이 목사님은 면접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서 그 캐나다 농촌교회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주일 영어설교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다른 일 못하고 오로지 영어설교 준비에 전부를 쏟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주일설교를 마치면 할머니 교인들이 두 줄로 서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목사님! 얼굴(Face)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Faith)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김 목사님! 놀이(Paly)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Prayer)로 응답을 받습니다.' 쉬운 단어인데도 목사님의 서투른 발음이 자상한 캐나다 할머니 교인들의 귀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수십 개씩 틀린 발음을 교정 받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강단 뒷문으로 도망하는 주일엔 어김없이 목사관으로 전화를 걸어서 교정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처럼 이

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발음이 나빠서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목회 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불안한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설교하려고 애쓰지 말고, 쉬운 복음 설교를 하거라! 십자가 설교,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라'는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코리안 목사님의 설교주제가 완전히 복음설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쳤는데 더 많은 어른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들의 표정은 발음 교정하겠다는 그런 표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감동적인 얼굴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다가와 감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이 천국 설교,

십자가 설교, 지옥 설교를 듣게 되어 감사해요. 우리들이 주일 학교 때 듣고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교인들이 주일학교 때 들었다면 6-70년 만에 복음 설교를 처음 듣는 계산입니다. 그 날 이후로는 발음 교정하겠다고 기다리는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가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제일 먼저 결정했습니다. 자유, 평등, 인권... 보다 먼저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는 교회를 죽이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코리안캐네디언 목사님은 지금도 35년째 토론토 근교의 농촌 교회에서 여전히 은혜롭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박장호 목사
(타코마한인장로교회)



요한3서는 사도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본 서신에 나오는 가이오는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는데 신약성경에 그 이름이 몇 군데 더 나오고 있습니다. 롬 16:23절에 "가이오도 문안 하고", 고전 1:14절에 바울이 특별히 세례를 준 "가이오", 행 19:29절에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본문의 가이오가 이 세분 중에 한 분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가이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말이 "가이오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소유했다."는 말은 그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안에서 사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진리대로 행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처럼 진리를 소유한 성도,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규적으로 듣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이루어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가이오처럼 우리도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요?

둘째,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생활뿐 아니라 경제생활과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속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병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위하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헬라어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기쁨이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 2, 5절을 보면 요한은 세 번이나 반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에고 아가포"(εγω αγαπω)라고 하여 가이오를 엄청 사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마음에 진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요한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습니.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에 바른 진리를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진실한 일이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기 위해 다니던 나그네들을 대접한 일입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인들을 용서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

2절을 보면 요한은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를 칭찬하고 있는데 "네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합니다. 초대당시의 박해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죠. 요한복음 15: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갈렘을 보십시오. 그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

요한은 사랑을 받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가이오는 바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둘째, 가이오는 진리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하는데요. 가이오는 진리를 간직할 뿐 아니라 진리

셋째,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진실한 일이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기 위해 다니던 나그네들을 대접한 일입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인들을 용서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

서도 가이오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육신도 건강하려면 꾸준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죠. 요한복음 15: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14:10-11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이라고 합니다. 80대의 나이에도 40대의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강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첫째, 가이오는 바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둘째, 가이오는 진리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하는데요. 가이오는 진리를 간직할 뿐 아니라 진리

셋째,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진실한 일이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기 위해 다니던 나그네들을 대접한 일입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인들을 용서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

육신도 건강하려면 꾸준한

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가이오처럼 바른 진리를 소유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angpark03@gmail.com

영혼이 잘됨같이

요한삼서 1장 1-4절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이민목회 20년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를 감당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미래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다가오는 미래 교회를 생각하며, 새롭게 목회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중의 하나는 코로나 이후 미래의 한국 교회를 예측하는 내용이었다.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하며,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이전 출석교인의 30%만 돌아오지 못한다는 연구보고를 전해준 것이었다.

실제로, 인터넷 예배의 활성화로 인한 주일성수 개념의 파괴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노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더불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의 상황이 많은 부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가오는 목회적 환경들로 인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러한 때에, 세미나를 통해 듣고 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작은 대안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본다.

1. 기준을 분명히-교회중심

다양화가 필요하다.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귀한(?)을 준비하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방목, 집콕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들이 교회를 공금해 하고 보고 싶은 곳으로 여겨지도록 조금의 변화라도 추구할 것을 권한다. 한마디로, 교회 보수공사라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카페공사, 교육관 개보수 작업, 야외외터, 게시판을 바꾸거나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공금해 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해본다면 좋을 것 같다. 도무지 할 일이 없다면 교회 배너디자인이라도 바꾸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교회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

조장기보다 많이 잠잠해졌지만, 향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주일 현장예배와 가정예배는 함께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제한된 상황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걸음이라도 더 교회 앞으로 성도들을 초청할 길이 없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를 향해 가듯이 주일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시다

있다는 말이다. 불신영혼에게도 찾아갈 것인데, 기존의 신자가 코로나염병에 그 연합함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때 감정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일 것이다. 집도끼(?) 성도들이 길 잃어버리지 않을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카메라와 열악한 경우에는 전화기 카메라 몇 대를 사용해도 되는 미니 교회방송국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편집기술은 유튜브 영상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방송국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삶을 취재하거나 간증스토리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현장예배가운데서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그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 기도의 제목들이 소개가 된다면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교회 앞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연결선들이 저들과 교회의 신앙의 끈이 되고 훗날 현장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에 어색하지 않을 반가운 상봉을 이루게 될 것이다.

4. 소금과 등불의 공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모두

은 간증과 사역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본 교회의 경우에는 전체교우와 구역별, 성경공부 조별, 리더십 등의 다양한 단톡방을 통해서, 교회 홍보담당관을 정해 댓글이 꼬리를 물지 않는 범위에서 교회가 행하는 선한 사역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격주로 행해지는 정기적인 도시락으로 찾아가는 오병이어의 사역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10의 1을 한 번 더 현금하도록 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흘러보내는 일에 사용하는 일 등을 잘 홍보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가 감당하는 선한 일에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과 교회의 연결 끈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5. 불량사상과 매제주의

많은 사람들의 손바닥안의 작은 전화기를 통해 진지한 생각의 생각을 생각한 채 유튜브를 중심한 여러 매체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본다. 대통령 선거관련, 백신과 음모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 스크린이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본다. 굉장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일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코로나 시대 신앙과 목회

- 30%, Reaching In & Out, 교회중심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기준, Goal'에 대한 문제이다. 목회와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 철학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 부어 세운 종들에게는 주님의 변함없는 요구하심이 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교회중심의 신앙과 목회에 대해 "기준!" 하고 나팔을 선명하게 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힘 있고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 '교회로 나오라,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함께 주의 영광을 보자. 교회는 주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 양들은 두려움 속에서 울다가도 따라올 것이다.

물론,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나팔을 불어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괜찮다. 나팔을 불어도 따라올지, 아니면 제 갈 길을 갈런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목자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양들이 따라올 가능성조차 전무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께 결과를 맡기고, 힘차게 교회로 오라고, "교회에서 최고의 방역 속에 최선의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나팔을 부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로 이 부분이 선명하지 못하다면, 직부유기의 죄를 범하는 목자로 판단 받을 런지 모를 일이다.

2. Reaching In - 한걸음 더

교회를 기대하도록 사역의

아이들 복장을 챙겨서 차를 몰고 교회로 와서 교회 파킹장에서 영상으로 주차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다. 집이나, 주차장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뭘 모르는 말이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에 집에서 방콕예배를 드립시다, 비록 주차장이라 하여도 주님의 집 뜰에서 예배드림이 신앙교육이나 예배의 은혜면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고 할 때 주님은 과연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는가? 할 수만 있으면 한걸음이라도 더 주의 교회로 가까이 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복 주시지 않겠는가?

3. Reaching Out - 30%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 불출석을 말하는 30%의 성도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수치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마다 잠재적인 신앙낙오자(?)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이란 우리 쪽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외에는 없다.

최선의 노력이란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걱정하는 단계는 아직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수적인 신앙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진 이들은 보면 대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점잖고 겸손한 신앙의 행태를 많이 띤다. 많이 얌전하고 조심스러워하며 개인 경건생활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형태가 코로나시기를 지나는 한국에서는 방역의 문제와 더불어 상당한 오해를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한국사회에 대해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교육과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과 예배드림이 충돌했을 때, 일제의 총칼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가치를 헤아리지 못한 채 매물차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내부에서도 양 갈래로 견해가 나뉘지는 것을 본 것이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대 사회적 영역에서 소금처럼 소리 없이 녹아지는 봉사의 역할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사역의 좋은 면을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 부분은 약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영광을 위해 소문을 내고 사람 앞에 나팔을 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선한 것은 전하고 알려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귀한 것이라 여겨진다. 미답이 악담을 이기는 원리처럼 코로나시기에 성도들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오는 악한 일들에 대해 계속 좋

예를 들면 어느 신학자는 중세시대 교회로부터의 신앙의 자유와 오늘날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환경을 연결해서 '교회라는 건물에 성도들의 신앙이 갇히지 않도록 권고'하는 책을 내었다. 교회는 건물이지만 성전이다. 우리 몸이 그냥 몸이지만 성령이 거하므로 성전이 되는 것과 같다. 교회는 외양이 건물이다. 언제라도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물체이다. 그러나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곳은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겠는가?

예측컨대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열광하며 자신들의 교회 밖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을 것 같다. 학문이라 하여도 가나안 성도들이 속출하는 시대에 굳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을 펼칠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된다. 참 해롭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은퇴목사가 대표적인 기독교방송에서 '코로나나라는 대포로 교회를 박살내었다'는 정신없는 이야기를 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해 뱉어낸 것이다. '성과 같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대포를 쏘아줌으로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영상예배와 같은 특별한 은혜의 도구를 허락하셔서 오히려 회복을 맞본다는 엉터리 이야기였다.

기존 교회의 전통적인 현장예배를 대포로 폭파시키듯 했다는 그의 언행은 결코 하나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현 한국 정부와 정치행태를 보면 조국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좌파정권에 분노가 치미는 것이 비록 나뉘일까요? 한국을 위기에서 구할 이승만과 같은 정치적 메시야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같은 애국자이지만 김구 선생과 이승만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에서 Kim

A: 좋은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포함됩니다. 질문자가 느끼신 것은 해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동포들도 같은 생각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김교신 선생이 늘 추종했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현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 탄식이 많이 나오고 문정부 탄생 이후 TV의 한국 뉴스를 보지 않은지도 몇 년이 됩니다. 질문하신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정성구 박사의 글을 참조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구 광진교회 특강/미주크리스천신문 11/21/20).

현 정부는 1948년 8.15의 대한민국 탄생일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합니다. 일반 백성도 아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입니다. 현 정권은 이승만 대신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우기고 있는데, 임시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 서울과 블라디보스톡과 상해 3곳에 있다

이승만-자유대한민국 탄생시켜, 김구-좌우합장 주장

가 상해를 발전적으로 합쳤습니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의 지도자 중에는 진정한 애국자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상해임시정부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였지만 상해임시정부 안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박사를 퇴출시키고 항상 좌우합장을 주장하는 김구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나라의 큰 지도자요 애국자임에는 맞으나 그는 평생 좌우합작,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앞세웠고 남북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1948년 평양을 찾아가 김구 선생은 김일성에게 푸대접을 받고 이용만 실컷 당하고 김일성의 붉은 군대의 사열이나 받고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문창국의 "역사읽기"란 책을 보면 "김구는 공산주의 체제는 현실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공산주의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p.152). 특히 김구는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가장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김구를 위대한 애국자로 치켜 올려 세우고 있는 반면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미국 뉴욕타임스의 조간지 1면 톱뉴스에 이승만 박사에 의해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UN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적 국가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6.25 휴전협상 때 한미방호조약을 미국과 체결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았습니다. 공산권인 소련, 중국, 북한에 둘러싸인 우리는 미국 없이는 곧바로 공산화 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가 왜 유독 이승만을 미워하느냐? 그 핵심은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을 공산주의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요 위대한 외교가요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 국부로 모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모든 면에 위기이지만 제2의 이승만 같은 정치적 지도자가 부상하리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기뻐하지 않을 불법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을 떠나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의 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몸 된 교회를 향해 코로나 대포를 쏘시겠는가?

멈추지 말고 일하라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코로나나 멈춰 서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역자에게 동일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실제 일하는 교회는 이런 시기에 교회건축까지 준비하며 일하는 것을 본다. 교회는 계속해서 멈추어 있지 않고 일해야 한다. 그리하여 코로나를 넘어서는 역동적인 그 힘으로, 코로나 이후에 후회와 탄식과 핑계와 침체가 아닌, 힘 있는 간증이 기록하는 복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신앙, 목회적 현실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격정하고 있는 단계는 아직은 뭘 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을 부르며 막연히 기다리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교묘하고 악하게 교회를 위협한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분향 예루살렘을 사모하듯이 이 극한 염병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은 더욱 잘 영적으로 무장되어 주의 몸 된 교회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가운데 지나야 할 것이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항상 주의 전에 머물러 있다.
davidnjeon@yahoo.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SD주, 성전환男의 女경기 출전금지법 통과

사우스다코타주 상원이 8일 성전환자로 확인된 남성 선수들이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안(1217호)은 지난달 하원을 50대 17로, 상원을 20대 15로 통과했다.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12명, 민주당에서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우스다코타주 법은 “여성 팀이나 스포츠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들에게만 참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개적으로 후원을 받는 각 운동팀은 남성, 여성 또는 남녀 혼합 스포츠로 지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선수는 팀에 합류하기 전 나이, 생물학적 성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노엘 주지사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서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곳 사우스다코타에서 여성 운동경기를 보호함으로써 국제 여성들의 눈을 기쁘게 한다. 이 법안에 곧 서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연방 차원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불법화하는 평등법이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평등가들은 이 법안이 더 많은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전용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여성들의 기회를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아칸소 주지사, 낙태금지법안 서명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 주지사(공화당)는 지난 9일 사실상 주 내에서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재판(Roe v. Wade·임신 중립 권리를 인정한 미국 최고 재판소의 판례)의 판례를 재검토할 기회를 여기고 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연내로 효력을 발효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번 법안으로 향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이유로 임신 중절이 시행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칸소주는 올해 주의회에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4개 주 가운데 하나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은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 때문이며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생명 존중에 대한 신념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중남미의 빌리 그레이엄’ 루이스 팔라우 별세

‘중남미의 빌리 그레이엄’으로 불린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 등 현지 언론은 이날 팔라우가 폐암으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팔라우는 2018년 1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3년간 투병생활을 해왔다.

아르헨티나 출신 이민자인 팔라우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전도집회를 이끌며 수백만 명을 전도한 복음전도자다. 그의 집회로 회심한 사람 가운데는 중남미 국가 원수도 있었다. 그는 미국 복음주의의 대부이자 세계적 복음전도자로 불린 빌리 그레이엄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혀왔다. 10대 시절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고 자란 팔라우는 1962년 그의 집회를 통역했고, 78년부터는 그레이엄의 지원을 받아 복음전도 집회를 이끌었다.

팔라우는 방송 라디오와 TV에 전도집회 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중남미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또 방문한 국가의 지도자와 만나는 자리도 모색해 이들을 직접 전도했다. 일례로 카를로스 아라나 오소리오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면담시간 12분을 훌쩍 넘긴 1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했다.

팔라우의 전도집회는 수십 년간 각지의 지역 교회와 성서공회와 긴밀히 협력해 개최됐다. 이러한 협력 결과 팔라우의 전도집회는 교파를 넘어선 연합의 장이 됐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러시아와 이집트에서는 정교회 그리스도인과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그의 전도집회에 모여 예배했다. 팔라우는 76년 CT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시 전도집회의 일차적 목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직접 회심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역 교회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주로 사역을 펼친 팔라우는 미국의 라틴계가 백인과 흑인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백인처럼 도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며, 흑인 사회처럼 역사적 상처가 있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서구에서 복음주의 열정이 식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미국 주류 복음주의 교회는 너무 안일해졌습니다. 열정을 잃었고 옹고 그릇에 관한 확신도 잃었습니다. 라틴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면, 복음주의 교회 자체도 변화할 것입니다.”

전쟁·조혼에 내몰린 시리아 아동들...

시리아 아동들이 10년간 진행된 내전으로 안전한 삶을 박탈당했다. 죽음을 목격하거나 희생된 일이 비밀비해하고, 조혼과 폭력 등에 내몰렸다. 국제개발기구 국제월드비전은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전 세계가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제월드비전은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경제적 손실과 파괴된 아동의 삶’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의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된 전쟁이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국제월드비전은 2011년 3월 내전 발발 후 10년간 시리아가 1조2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60만명 이상이 희생됐고 이 중 5만5000여명이 어린이였다.

시리아인 2200만여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난민이 됐다. 620만여명은 시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했고 560만여명이 인접국인 레바논 요르단 터키로 떠났다. 난민의 40%는 17세 미만 아동이었다.

내전으로 인해 아동의 안전한 삶은 불가능해졌다. 기대 수명은 13년이나 감소했다. 요한 무이즈 국제월드비전 시리아 대응책임자는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일에 극심한 충격을 받은 시리아 아이들은 매일 월드비전을 찾는다”며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은 소리만 듣고도 폭탄 이름을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4~2019년 시리아 소년병 모집은 300% 가까이 증가했다. 소년병으로 징집된 이들의 82%는 전쟁에 참여했고 이 중 25%는 15세 미만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는 난민 아동의 삶을 더 큰 어려움으로 내몰았다. 국제월드비전은 생계 문제로 400만명 이상의 여아가 조혼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앤드루 몰리 국제월드비전 총재는 “시리아 아동들은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조혼 폭력 아동 노동 등 상상할 수조차 없는 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월드비전과 같은 NGO, 국제기구, 국가 지도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ZIM, 자료 모두 삭제 이름도 바꿔

라비 재커라이어스 국제사역센터(RZIM)는 향후 라비 재커라이어스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을 것이며, 재커라이어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RZIM 새라 데이비스 대표는 “현재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정의, 재커라이어스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재커라이어스의 딸이다.

데이비스 대표는 “1984년 설립된 RZIM은 단체 이름도 바꿀 것이며 지금은 라비가 변증가로서 활동하면서 축적했던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RZIM은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

용을 없애는 과정 중에 있다. 또 출판물과 영상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명칭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스 대표는 “우리는 ‘재커라이어스연구소’라는 브랜드 사용도 중지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우리는 회개를 지속하도록, 그리고 배우는 자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향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ZIM은 재커라이어스의 성폭행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재커라이어스(1946-2020)는 세계적 변증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생전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전 세계 기독교계에 충격을 던졌다.

존더반과 토마스넬슨을 소유한 출판그룹 하퍼콜린스 등 재커라이어스의 책을 펴낸 미국의 대형 기독교 출판사들은 책을 모두 절판했다. 또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교단도 그의 목사 안수를 취소했다.

美 여성운동가들, DC서 평등법 반대 시위

국제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3월 8일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을 반대하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시위에 나섰다.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200여 명의 여성들이 워싱턴DC 내셔널몰 인근에 모여 헌수막과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남성 성전환자의 여성 운동 경기 참여를 허용한 데 대해 항의했다. 그리고 3일 미국 상원에 상정된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먼 피켓-디씨 랠리’(Women Picket-DC rally) 찰리 래 편집장은 “대중들이 인권이라 여겼던 ‘성 정체성’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현존하는 인권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성 정체성 개념, 즉 성전환주의, 의료화, 사회 정책과 제도의 변화들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 이 시위는 당파가 아닌 ‘기본 상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주최자이자 연사 중 한 명인 코트니 파이퍼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 15-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전개돼왔다”며 “이는 막대한 돈에 힘입은 선전으로 지금은 학교 시범과 정부 기관 전체에 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대중들은 진실로 집단 최면 및 속임수 아래 놓여있다”며 “상원에서 평등법 통과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여성인권운동본부의 카라 단스키 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그들이 남성을 여성이라고 해도 남성은 여성이 아니고, 그들이 여성을 남성이라 말해도 여성은 남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부구 영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8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17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봉곡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신협(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www.est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00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예배4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8: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주일6부예배: 오후 2:00 주일7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9-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천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성격과 신앙

현대 사회는 긍정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다. 밝고 진취적인 생각을 지녀야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경계하고 거부하라고 한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평과 허탈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빠르게 전염된다.

불행하게도 교회공동체 안에도 긍정적인 성도와 부정적인 성도가 있다.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와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매우 다르다.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을 덕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제를 지적하고 확대하는 것을 의로운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공동체의 인간관계에 거침돌이 되고 어려움을 준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성격은 누구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 거듭나 새사람이 된다고 선언한다. 성화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성격도 변화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가?

긍정적 사고

한국교회는 사마니즘과 운명론에 입각한 부정적 신앙의 영향 가운데 출발하였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매우 어두웠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속히 받아들였다. 자신과 이 세상을 부정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덕스런 신앙의 자세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성격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는 것과 성격적으로 자기 부정을 실천하는 일 사이에 혼동을 경험하였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 전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다. 이런 상황적 변화와 맞물려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긍정적 사고에 입각한 신앙이 한국교회에 소개되었다. 기독교신앙과 번역복음에 이어 긍정적 사고에 기초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요행을 바라거나 주저앉지 말고,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에 충만하여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성공할 것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인기를 끌었다. 동서고금의 성공사례들이 설교예화에 등장하였다.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신앙적 확신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 즉 심리적 감동을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흥미롭게도 성도들은 죄를 지적하고 성경적 자기부정을 요구하는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설교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특히 긍정적 사고를 도입하여 대형교회를 이룬 일부 목회자들의 목회를, 소위 성공적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목회에 적용하려는 설교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한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현재까지도 긍정적 사고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하는 설교자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렇다면 긍정적 사고를 신앙인들에게 심어주는 설교가 유익한 것이 아닐까? 언뜻 보면 맞는 말이다. 긍정적

한 '긍정적 사고의 힘(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 무려 168주 동안 뉴욕타임스에 의해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이후부터였다. 이 책은 미국 내 뿐 아니라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소개되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했고 54년간 '삶의 기술(The Art of Living)'이란 라디오프로그램을 지속하였으며, 텔레비전 방송과 정기발행 잡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신앙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가 시종일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필은 젊어서부터 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초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던 미국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가였던 스마일리 블랜턴(Smilely Blanton, 1882-1966)과 같이 종교심리학적 지

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변화하는 행동이다. 필의 긍정적 사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거부한다. 그는 가장 큰 죄를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의 열매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였다.

긍정의 달콤함

필이 제시한 '방법론'은 미국교회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심리학자들이 필의 이론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어설픈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와 동역하던 블랜턴마저 자신은 필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리를 두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전통적 신앙을 보수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가 인간 중심으로 탈바꿈한 기독교를 소개하였다는 비판

드리는) 교회건물을 세우고, 1980년에는 그 유명한 수정교회를 건축한 목회자이다. 전 세계로 '능력의 시간(The Hour of Power)'을 방송하여 성도의 삶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술러의 가르침은 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다했을 때, 부정적 감각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긍정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가 강조한 것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자존감이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기에,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기에, 반드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지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일주일에 한번은 교회에 나와 긍정적 사고를 통해 깊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할리우드의 스타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그의 교회를 찾았다. 술러 역시 긍정의 달콤함을 내세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추구한 것이다.

오스틴은 상당히 잘 알려진 목회자이다. 그는 신학공부를 정식으로 마친 경험이 없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 개척한 레이크우드교회에서 17년간 교회 방송을 맡아 일을 하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공석이 되자 설교를 시작하여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그의 설교는 어렵지 않아 대중적이다. 불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한다. 특히 그는 긍정적 사고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긍정의 힘'에 나타난 그의 근본적인 사상은 필이나 술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마음으로 일어설 것을 권유한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 심리학적인 방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강조한다. 불행하게도, 오스틴 역시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

자기부정

사람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원죄로 인해 부패된 인간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내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의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성도는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매 순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1)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18) - 긍정적 신앙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성령이 돕는 긍정적 변화와 긍정적 사고에 스스로 변하는 확신 혼동 말아야 긍정적 사고는 하나님 능력을 제한... 자기 부정하고 하나님 철저히 신뢰해야

인 성도가 활력이 넘치는 신앙을 영위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는 것과 긍정적 사고에 입각해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노먼 빈센트 필

긍정적 사고가 교회 안으로 소개된 것은 노먼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 1898-1993) 목사에 의해서이다. 그는 어려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결국 뉴욕에서 교회를 급성장시킨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도 친분관계를 맺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서 그의 교회에 출석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한 바 있다.

그가 미국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계기는 1952년에 저술

료를 행하는 진료소를 운영하였다. 향후 1951년에 '미국종교심리학재단'으로 발족하였는데, 필이 대표를 맡았으며 블랜턴은 총무직을 맡게 되었다.

필이 제시한 격정을 깨뜨리는 방법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격정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습관이므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텅 비게 하는 연습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잠재의 식과 연관되어 잠들기 전 5분이 가장 중요한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창조적으로 상상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믿음을 채우고자 한다. 그런데 그가 제시하는 믿음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다. 그는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생각을 채우며 자신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주문한다. 그 후로도 매일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의 잔치를 쳐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필은 긍정적 사고를 갖기 위해 협력자인 오스틴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개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이자. 내가 목적이

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당대 사람들은 필이 제시한 방법론에 열광했다. 긍정이 지닌 달콤함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필의 긍정적 사고의 영향력은 후대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미 육군 지원병 광고에 등장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Be all that you can be)'라는 문구가 여색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을 무조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룰 수 있다는 주제를 담은 론다 번(Rhonda Byrne)의 '시크릿'이란 소설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심리학에 물든 인간중심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긍정적 사고의 설교자로 로버트 술러(Robert Schuller, 1926-2015)와 조엘 오스틴(Joel Osteen)을 꼽을 수 있다. 술러는 1961년에 초대형 드라이브인(Drive in: 파킹한 차 안에서 예배를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CA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CA) featuring variou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사랑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리더십 코멘터리 (131)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뉴노멀 리더십

회복되어야 할 영적리더십

"내가 경험한 탁월한 리더들은 유달리 똑똑하거나 달변가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큰 키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못했다. 거의 보통 수준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와 설득력 있고 명료한 생각으로 깊이 헌신하는 자들이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분을 꼽히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리더는 타고나기보다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지금 기독교와 교회는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리더십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리더십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이 특별해 보이고 유명대학의 교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큰 지위에 오른 것처럼 착각

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적용할 때 가능하다.

둘째, 사회적 에너지를 불안과 공황이 아닌 사랑과 준비로 바꿔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소규모 공동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을 줄이고 믿음을 키우며 자기보호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사교를 전환할 때만 가능하다.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리더십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첫째,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영적리더는 면역력강화를 중심으로 한 건강에 유념하면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두려움과 염려

리더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첫째,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성경적 리더십이고 그것은 곧 십자가 리더십으로 귀결된다. 청지기 리더십을 가진 영적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까지 인도해야 하고 목자로서 양들을 향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 영적리더들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죽기까지 자신을 비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둘째,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고 가는 순종이 필요하며 그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리더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바른 시각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극기의 모습 그리고 계속 배우겠다는 자세가 영적리더에게 요구된다.

코로나19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전염병이 초래할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겠지만, 과거의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제한적인 것이다. 우리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 위기가 주는 가장 큰 기회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목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뉴노멀시대에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

청지기 리더십으로 사랑 전제된 순종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장발전하고 존경받으며 열정 다해 헌신하는 리더 필요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다. 영적리더십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리더십은 무엇인가?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삶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힘을 남용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리더십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비정상적 환경은 영적리더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바이러스 위기를 맞은 우리는 다음의 근본적인 두 가지에 있어서 가능성의 지평을 변혁해 나가야 한다.

첫째로는,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방식(norms)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를 단기간에 구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습관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화

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리더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영적리더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영적리더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마음과 생각, 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

코로나19 이후 조직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리더들은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 기존에 통용되던 리더십에 관한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리더의 유연함과 민첩성이 요구되고 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첫째로, 성장 발전하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영적리더는 리더십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해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생각의 구조나 내용이 철저하게 말씀과 일치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입게 한다.

둘째로,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리더가 되라.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리더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영적리더가 지도자로서 열정을 다해 헌신해 나갈 때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지도자를 따르는 이들은 성장하고 있는 리더를 따라가며 진정으로 주님의 품성을 닮고자 할 것이다. 지금은 영적리더십이 변혁되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으로 회복되어야 할 때이다.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라.

sondongwon@gmail.com



인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혼가정 자녀회복 (1)

아빠와 엄마의 다툼은 소리가 커지고 길어지던 어느날 아빠는, 엄마에게 무언가 큰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동생과 저도 오라하더니 '아빠는 곧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지만 주말에는 아빠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며 토할 것 같았는데 동생은 그 아파트 가까이에 친한 친구가 살고 있으니 그 친구와 놀 수 있겠다고 해서 제 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아빠를 매일 볼 수 없게 된다고?

토요일에 아빠는 짐을 싸서 나갔고 주일날에 농구시합이 있었어요. 뛰면서도 혹시 아빠가 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둘러봤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시합 끝나고 엄마와 피자집에 갔는데 동생은 '나는 그냥 아빠가 출장갔다고 생각할 거야' 하면서 엄마 피자까지 훔쳐 다 먹었지만 난 아빠를 매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 중 한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 다음으로 치명적인만큼 한 쪽 부모의 떠나감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자녀들엔 마치 풍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 당사자들에게 헤엄이 해결책일 수도 있겠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주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곤 엄청난 무게에 눌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틀이 깨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져감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부모들의 주의할 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선, 별거나 이혼을 앞두고 자녀들이 마음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상대방에 대한 역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상황과 주요변화, 예를 들어 엄마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므로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든지, 가사 일을 도와야 한다든지 등에 대해 자녀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엄마 아빠가 한집에 살지 않게 되더라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모중의 한사람이 아닐지라도 결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조부모나 고모, 이모 등의 친지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감을 얻도록 성경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성경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어요"(막4:35-41).

-나와 얘기하게 되면서 처음엔 속상해지고 더 슬퍼질지도 몰라. 하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따로 살게 되면서 <16면으로 계속>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교회</h2>		<h3>뉴욕갯세마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신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3>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50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운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이재성</p> <p>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성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새벽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턴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베이스айд 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식</p> <p>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국특별선언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3>사랑의동산교회</h3> <p>담임목사: 강신용</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p>	<h3>어린양 개혁 교회</h3> <p>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p> <p>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3>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화-토) 오전 6:30(토) 금요초기도: 화, 목, 금, 토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토) 오후 7:30</p> <p>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uci, S.Paulo Cep 01528-010</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 오전예배: 오전 7: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현지인 교회</h3>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p> <p>1. 멕시코 빈선대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생명을 맡은 자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6분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으로 향하던 US 에어웨이 1549편 비행기가 이륙직후 두 엔진에 거위가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장 셀렌스버그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켰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라과디아 공항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시키기엔 주위에 주춧돌이 밀집해 있어 가다가 추락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조종대를 잡은 기장 셀렌스버그의 한 순간의 판단력이 비행기내 155명의 생사를 가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을

결심했고 마침내 비상착륙이 성공리에 이루어졌고 155명의 생명이 모두 구출되는 “허드슨 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감동스런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지혜롭고 용기있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위 모든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20-26에 보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우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지중해에서 14일 동안 표류하며 난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배의 기구와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식량까지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싸였고 선장과 선주도 지휘권을 가진 올리오 백부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바울이 분명히 일어나 그 위기에 빠진 배를 진두지휘하여 276명 전원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거대한 배가 지금 엄청난 영적 광풍에 흔들리고 있

니다. 세계 역사에 볼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이상을 모두가 고통 하는 재앙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가 “평등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미국을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이 광풍에서 미국을 구원할 수 있는 의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난 2월 25일 미 하원의원에서 “평등법(Equality Act, H.R.5)-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 통과되어 상원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평등법은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남학생이 자신을 여자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 여자사위장, 여자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학생이 여자트랜스라고하면 여자아이들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룻밤 여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엔 학생들이 부모의 동의하에 낙태를 해야 하는 것을 이제는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등학교에도 임신센터가 낙태추진을 제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학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지방 세금면제 및 인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성애자도 다른 성도착증 범죄자들과 함께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Tv Next에서 발표). 그러므로 미국에서 이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미국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땅이 되어 하나님께 심판과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그래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래함(빌리그래함전도협회 회장)은 이 사상조류의 악법인 “평등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에 위반한 것이므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평등법 상원통과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언론을 통해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섬기는 주님세운교회는 즉시 당회를 열고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교인으로 결정하고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더욱 뜨겁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세운교회가 속해있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도회에 서는 지난 3월 11일 정기노회 때에 정책위원회 발의로 “평등

법 반대서명운동을 노회산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것을 권유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파수꾼의 외침을 듣고 모두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훗날 이어두운 패역의 시대에 얼마나 진리를 거스리는 불의와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역사 앞에, 후손들 앞에 심판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땀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둠의 시대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생명을 맡은 자입니다! 한사람 셀렌스버그 기장으로 말미암아 US에어웨이 1049 비행기내의 모든 승객이 구원 받았듯이, 한사람 바울로 인해 우라굴로 광풍 속에서 절망에 빠진 176명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사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파수꾼과 같은 거룩한 한 사람이 간절히 요청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한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ik0184yahoo.com

특별기고



최수일 선교사 (인조영감미션 대표)

666 짐승은 ‘세계통합정부’ 를 세우는가?

‘666 짐승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정부를 세운다! 그는 통합정부의 수장이 되어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한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며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주님에 오셔서 그를 볼 때가 던지기까지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사탄은 지금도 세계를 통합하려는 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모든 면이 느슨해진 이 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적기이다!’ 이런 주장들은 새로운 소리 아니다. 끊임없이 문서와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20:1-6)을 ‘세대주의적으로나 전천년적’으로 이해하는 층에서 이런 주장이 더 많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어 신자들을 천국(낙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휴거(rapture)를 행하신다. 그 때 이 땅에는 불신자와 신실하지 못한 신자들만 남는데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여 극도의 압박과 고통을 준다. 휴거 직전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통합정부론’을 주장함이 무슨 문제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또 세계통합정부를 세우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신앙으로 무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들은 세계통합정부의 설립은 너무 확실하고 기정사실이므로 우리의 노력여하를 막론하여 반드시 나타날 체제라 한다. 눈에 보이는 폭력정부가

들어서 전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다. 이런 고착되고 맹목적인 확신은 건전한 신앙생활에 큰 방해요소이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전세계를 통합하여 눈에 보이는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한 것이다. 다음은, 역사상에 나타날 인물 중에 누가 666

왕을 대적한다(단8:21-25). 이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 인용하는데,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며 그는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수는 육백육십육이 나라(13:3-18). 그리고 음녀가 타고 이는 그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며 뿔이 열인데 열 뿔은 열 왕이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일관된 전략이다. 이슬람, 힌두교, 강성 불교권과 사회주의 국가의 왕들은 포섭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상과 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서구와 기독교권이 좌경화되면 전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사상적인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복음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적그리스도가 목적하는 것은 사람들이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것이므로 세상 모든 나라의 종교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3. 그러면 이 시대 적그리스도는 어떤 제안으로 왕들을 포섭하는가? 세상 왕들의 관심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권력기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나 체제가 있으면 적극 수용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세상 왕들의 요구를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로 잡아야! 독재를 해야! 엄청난 게 퍼부어주고 쾌락 위주의 국가 운영을 해야! 이런 방법들로 세상 왕들을 움직일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방법은 통치 이념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제안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상체계, 그러면서 그런 체제를 따르면 사람들의 믿음이 파산되는 묘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이런 묘안을 사탄이 제의했기

수에 휩쓸려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논리로 ‘동성애,’ ‘종교 다원주의,’ ‘기성세대 거부,’ ‘공평한 분배’의 요구가 일어나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늘어났다. 세상 왕들이 볼 때에 이런 좌파사상은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돌아섬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든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으로 채용을 한다. 적그리스도왕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왕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이다. 역사상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 보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다 실패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단2:43)라는 성경의 예언대로이다.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모한 단일정부설립을 시도하지 않고 이미 세상 존재하고 있는 각 나라의 종교체계를 사용하고 또 서구와 기독교권에서는 하나님의 가치를 반대하는 좌파체제를 심어 그들이 뜻을 성취하려 한다. 성경이 이런 사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탄이 포악한 통합정부를 세워 우리를 괴롭히려 우리는 아무 저지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자! 사탄의 길목을 지키며 그런 시도를 무력화시켜야한다. 사탄이 사용하는 ‘왜곡된 인권평등사상’을 학습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리고 연합하여 기도

복음 외 세상 모든 종교는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도구

신좌파운동 사조 확장, 인간행위를 개인의 인권적 표현으로 판단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기성세대 거부, 공평한 분배요구로 나타나

왜곡된 인권평등사상 반박, 보편적 가치 상반법령 법제화 막기 앞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하여 그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활동한다. 2.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왕은 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불가능함을 사탄도 안다. 그 땅을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을 미혹

사상이나 체제를 개발한다. “그들이(왕들)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계17:13)고 한다. 세상 왕들의 구미에 맞는 어떤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여 지원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은 모두가 그 시대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묘안으로 세상 왕들을 포섭하는가? ‘군사적으

(The New Left)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21세기를 이끄는 주류 사상으로서 자리 잡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를 윤리와 보편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각 개인의 인권적인 표현’으로 본다. 보편적 판단으로 볼 때 분명히 불의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그들의 인권적인 표현이니 공평하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사조의 흥

하며, 정부가 보편적 가치에 상반되는 법령들을 법제화하려 할 때 평화적 방법으로 진정하며 막자! 그런 법령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퇴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불드는 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paulus1127@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벡스카운티장로교회(담임 김풍운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1974년 설립됐다. △자격은 KAPC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고 본 교단인준 정규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고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목사(부목사)로 사역했으며 이중언어에 능통한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는 한영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신앙고백과 가족소개 포함), 목회비전 및 목회계획서,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목사안수 증명서/노회소속 증명서 각 1부, 목회자 추천서 3통(직접), 최근 1년 이내 설교동영상 2편(web link), 서류마감은 4월 30일까지이며 서류는 이메일(info@mybpc.org)로만 접수한다.

▲문의: www.buckscountychurch.org

여성 소프라노 솔리스트 초빙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여성 소프라노 솔리스트 사역자를 초빙한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성악 전공자. 이력서와 신앙 고백문이나 간증문을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4월 25일까지. 서류는 이메일(David2lord@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David2lord@hotmail.com

뉴욕교협 '10-10 연합기도운동' 전개

3월 15일-4월 3일 매일 저녁10시 10분간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부활절을 맞아 '10-10(텐텐) 연합기도운동'을 전개한다.

기도운동은 3월 15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한다.

교협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예수 부활의 승리가 기도를 통하여 뉴욕 교계와 속한 가정들마다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가정이나 교회 등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끼 금식하는 기도를 추천했다.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1)코로나 종식과 교회 회복을 위하여-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사회와 가정이 정상화되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

며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세계선교와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하여-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점점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받들어 선교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각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위하여-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셨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원정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일원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일원의 노회인 동북노회와 뉴욕노회가 정기노회를 열었다. 동북노회는 8일 오후 5시 줌화상으로, 뉴욕노회는 15일 넘치새교(구 한민교회)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회무처리와 함께 새 임원도 선출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보고는 팬데믹으로 불확기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 중이며, 팬데믹 이후 SEVIS(I-20) 재신청과 TRACS 회원가입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동북노회

제36회 정기노회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최명해 목사 인도로, 기도 정연오 장로, 설교 박용진 목사, 축도 오영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박용진 목사는 이사야서 40:1-8을 본문으로 "여호와와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회무처리 임원선거에서 노회장이 유임됐으며 새 회기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박용진 목사 △부노회장 이상훈 목사, 정연오 장로 △서기 최병관 목사 △부서기 허신국 목사 △회록서기 권석 목사 △부회록서기 정선희 목사.

팬데믹으로 노회 소속 지교회들은 모두 현장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될 5월 교단총회에는 지난해 선출된 노회총대(이은희, 이상훈, 오영관, 유용진, 최명해, 박용진) 등이 참석하기로 보고했다.

임원회 보고를 통해 목양장로교회 고소권을 변호사를 받고 보험회사와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기로 했으며, 노회가 가입한 보험에 선추행에 관련된 보험상품을 추가하고 보험대상을 직원에서 조직으로 확대했다.

지난 가을 정기노회에서 목양장로교회 원로목사 송병기 목사의 원로목사직 사임 서명을 허신국 목사가 보고했으며, 노회 피고소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한 바 있다.

뉴욕노회

제 64회 정기노회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주영광 목사 인도로 기도 김근태 장로, 설교 노성보 목사, 축도 김중훈 목사, 광고 김성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노회는 임원회를 통해 부서와 위원회 모임을 노회 전에 하고, 성찬예식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번 노회장 노성보 목사는 "남은 자가 되어"(사6:9-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그루터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루터기는 믿는 자들의 미한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음을 불사하는 그루터기로 남아 어둔 세상을 밝히는 빛 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2부 회의에서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주영광 목사 △부노회장 이상호 목사, 김근태 장로 △서기 김일국 목사 △부서기 최희섭 목사 △회록서기 김원진 목사 △부회록서기 조유환 목사 △회계 김기준 장로 △부회계 이범수 장로.

(16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일원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의 노회들이 지난 9일과 16일 일제히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대부분 대면으로 열었으며 오랜만에 만난 노회원들은 반가운 교제의 시간이 가졌다.

노회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뉴욕노회는 16일 오전 10시 뉴욕새사람교회(이종원 목사)에서 △뉴욕동노회는 9일 오전 10시 제자삼능교회(이규섭 목사)에서 △뉴욕남노회는 9일 오전 10시30분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가든노회는 9일 오전 10시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에서 △뉴욕서노회(기사 1817호 9, 10면)는 9일 오전 9시 여호수아장로교회(이만수 목사)에서 각각 열렸으며 회무처리에서 김영인 목사(생명생교회)의 교단 및 노회 탈퇴 건, 채경수 목사의 노회이명 청원건, 박종운 목사의 사찰회 통합 건 등을 다뤘다.

뉴욕노회

제 88회 정기노회는 예정시간이 오전 10시였으나 임원들과 공천부 등이 코비드 검사를 한 후 11시30분으로 연기하고 시작됐다.

예배는 노회장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이윤석 목사, 성경봉독 김경수 목사, 설교 부노회장 이종원 목사, 성찬예식 집례 문종은 목사, 축도 허윤준 목사, 광고 이윤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원 목사는 "엘리사의 영감"(왕하6:14-23)이라는 설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가 하는 일도 모두 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감, 영력은 필수이며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혼자서 나라를 구한 엘리사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인간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평소에도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맞춰 목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엘리사의 영감보다 더 높은 영감이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도전했다.

오찬 후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공천부의 공천으로 선임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과 부노회장 서기는 신임이며 나머지 임원은 유임됐다.

△노회장 이종원 목사 △부노회장 이윤석 목사 △서기 임영근 목사 △부서기 정기태 목사 △회록서기 방정훈 목사 △부회록서기 정인수 목사 △회계 차상남 장로 △부회계 박정봉 장로.

이번 회의 청원은 △주비전교회(이규본 목사) 한우연씨, 현종영씨 목사고시 청원 △킨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김정민씨, 최진식씨, 허준씨 목사고시 청원 △뉴욕새사람교회(이종원 목사) 박병준씨 목사고시 청원 △뉴욕빌라델비아교회(임시당회장 이영상 목사) 이재환씨 목사고시 청원을 허락받았으며 이외에 △뉴욕심포니교회 신동기 목사 노회가입을 허락했다.

뉴욕노회는 3개 사찰 하에 23교회, 목사회원 53명, 장로회원 10명이 소속돼 있다.

한편 16일 당일 오후 6시에는 킨즈장로교회에서 7명의 목사안수식이 거행됐다.

뉴욕동노회

제 88회 정기노회를 연 뉴욕동노회(노회장 박희근 목사)는 15개 교회가 회원교회로 있으며, 현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속한 노회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박희근 목사 인도로 기도 이문범 목사, 성경봉독 이육주 목사, 설교 박희근 목사, 축도 조문휘 목사, 광고 문덕연 목사(서기) 순서로 진행됐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성찬식은 갖지 않았다.

박희근 목사는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행20:28-3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무처리 임원공천을 통해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이규섭 목사 △부노회장 신철웅 목사 △서기 문덕연 목사 △부서기 차석희 목사 △회록서기 문신언 목사 △부회록서기 이문범 목사 △회계 황석천 장로 △부회계 한재덕 장로.

이날 회의에서는 △뉴욕성실장로교회(이길호 목사)의 차석희 목사 부목사 계속 시무 청원 △제자삼능교회(이규섭 목사)의 안경수 목사 부목사 계속 시무 청원 △주사랑장로교회(정준성 목사)의 김성일 목사 부목사 계속 시무 청원 △제자삼능교회가 청원한 최성일씨와 임현실씨 장로고시 청원 △이문범 목사가 청원한 이승엽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 청원 등을 처리했다.

뉴욕남노회

제20회 정기노회(노회장 조성희 목사)를 가진 뉴욕남노회는 1부 개회예배, 2부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조성희 목사 사회로, 기도 권영국 목사, 설교 임흥섭 목사, 성찬예식, 축도 김재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부노회장 임흥섭 목사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라"(왕상 19:1-12)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변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회복해야 하느냐"를 묻고, "7천명을 준비하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성찬예식은 노회원들이 앞으로 나가 떡과 잔을 직접 픽업하는 방식으로 전현수 목사 집례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는 시찰회 보고를 통해 교회들의 기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남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가든노회

노제목을 나누고 안건을 처리했다.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는 3명의 장로 증원 청원했으며 △라크랜드교회(조덕남 목사)는 '뉴저지새교회'로 교회이름을 바꾸었다. 회원교회들은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임원 공천을 통해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임흥섭 목사 △부노회장 전현수 목사 △서기 조영찬 목사 △부서기 심언 목사 △회록서기 이정환 목사 △부회록서기 이영록 목사 △회계 박덕수 장로 △부회계 서명환 장로.

제88회 정기노회

제88회 정기노회(노회장 이종식 목사)는 1부 개회예배, 2부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이종식 목사 인도로, 기도 박형기 목사, 성경봉독 오종민 목사, 설

교 조성훈 목사, 성찬예식 집례 허상희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광고 박해창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훈 목사는 마가복음 8장 33-38절을 본문으로 "나를 따라 오려거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회무처리에서 임원을 공천을 통해 선출된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조성훈 목사(뉴욕제일장로교회) △부노회장 박해창 목사(갈릴리교회) △서기 박형기 목사(기쁨의교회) △부서기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장로교회) △회록서기 오종민 목사(뉴저지 우리교회) △부회록서기 김지희 목사(광성교회) △회계 이인재 장로.

한편 상호 불편한 관계에 있는 김재열 목사와 이준성 목사는 각자의 입장을 긴 시간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노회는 더 이상 같은 일로 문제 삼지 않기를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선교" ...미션콘서트로 마무리

뉴욕센트럴교회 2021 선교대회, 강사 3명 초청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2021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됐다.

강사는 정민영 선교컨설턴트(전 인도네시아, 국제위클리프 구대표), 김재우 선교사(Proskuneo Ministries), K 선교사(T국)가 초청됐다.

대회는 첫날 김재우 선교사가 다민족어로 찬양을 인도한 후 송피터 장로 기도, 정민영 선교컨설턴트(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국제위클리프 구대표)가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참여"(계7:9-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통역은 박준영 목사(EM담당)가 맡았다.

정민영 선교사는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개념이 있다. 삼위일체와 유사하다. 성경이 보여주는 선교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상명령에 근거해서 선교를 이

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상당히 미시적이고 시행착오적으로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가 첫 단추가 된다"며 "구원, 복음, 개념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 영성은 (종교적 열심이나) 방향성, 즉 회심이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중심 사고로 바꾸는 것이며, 구원에 대한 질문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나,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나 질문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를 위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결론적으로 선교를 버거운 의무로 착각할 수 있는데, 사랑의 논법으로 풀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다. 선교는 깨어진 관계회복으로 초청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교회)를 초청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기는 것과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동전의 양면, 이 영광스런 부르심의 특권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메시지에 이어 김재열 목사는 "선교사임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성경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다. 선교는 우리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다.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해주셨는지 묵상해야 한다"며, "절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온라인 참석보다 현장에 나오기를 격려했다.

선교대회는 저녁 8시-10시, 새벽 6시-7시30분,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실시간 현장예배와 온라인 병행으로 열렸다. 또 주일인 13일 오후 5시에는 미션콘서트로 찬양, 간증, 교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축하보다 감사...회복은 복음으로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 개국 3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1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 분당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졌다.

권영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OverFlow Ministry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과 박신욱 목사(2대 사장) 기도, 이은수 목사 특송, 박희민 목사 설교, 송정명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박희민 목사(2대 이사장)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롬1:15-17)의 제목으로 “지난 30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역사를 바꾼다. 사도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고,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GBC 사역 속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와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영진 2부 축하는 지난 30년의 GBC사역을 영상으로 관람한 뒤, 임종희 목사(설립자 겸 1대 사장)의 격려말씀이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김영길 목사(4대 이사장)는



말씀을 전하는 박희민목사(좌)와 미주복음방송 3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말을 전하는 이영선목사(우)

“축하보다 감사를 드리고 싶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 배부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송축을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의 송축을 드리는 열매가 많다. 앞으로 30년 후엔 더 젊고 활발하기 바란다. 이전보다 활기와 영성이 넘쳐서 어두운 세상에 영원한 빛으로 가슴마다 찾아들어 소망을 주는 방송이 되기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사장 한기홍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GBC 방송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선교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한다.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의 은혜다. 회복은 복음으로 가능하다. 바른 여론을 만드는 선지자적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장 이영선 목사는 “실제 개국일보다 한달 늦춰 이렇게 대면으로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전임 대표들과 이사장들의 노고로 기반이 닦아졌고 그 기반 위에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만 했다. 이제 우리 GBC는 안전하게 미래지향적

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한다”며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했다.

GBC는 1991년 2월 임종희 목사에 의해 설립돼 AM1190을 통해 하루 4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1994년 인터넷방송을 시작했고 2003년 버질 소재 자체 사옥을 구입했으며 2011년 20년간 임대 사용한 AM1190채널을 구입하고 24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2016년 에나하임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방송선교를 위해 전력해오고 있다.

미주복음방송에 관해 자세한 것은 (714)484-1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391번째 조찬기도회가 비대면으로 열렸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 합심 기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비대면으로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민근)의 391번째 월례 조찬기도회가 지난 6일 중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번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미국과 한국 사회를 위해 △오렌지카운티 및 미국 각 지역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 △전도연합회 사역과 이사들의 건강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의 월

례조찬기도회는 지난 1981년 창립 이후 40여 년을 이어온 기도 모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전까지 OC지역의 한인교회 및 단체 지도자들이 새벽에 모여 당시 중요 현안들을 놓고 기도해왔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 5개월여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부터 줌을 이용한 비대면 기도회로 진행해오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평등법저지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모임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인교계 평등법저지운동본부 출범

평등법 제정저지위해, 타 지역 한인교회과도 연계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동성애법 반대를 위해 한인 목사들이 나섰다. 전 자마다대표 강순영 목사와 전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샘신 목사 등은 최근 '평등법저지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평등법 제정저지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평등법저지운동본부는 지난 9일 LA 한인타운에 있는 오직 예수선교회(담임 샘신 목사)에 모여 실행위원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반대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독교 가치관으로 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와 구체적인 서명 방법 등을 알리는 모임을 가지며, 전국에 있는 지역 한인교회협의회들과 논의해 한인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평등법저지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평등법(H.R.5)은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를 만큼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대폭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문란한 성생활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3월 3일 연방상원에 상정된 상태며 상원 통과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실제적인 법으로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평등법저지운동본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특혜가 이미 확장된 상태이며 이 법안 역시 상원에서 통과된 후 곧바로 승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프랭크린 그레함 목사(빌리그레함전도협회 회장) 역시 역사

상 최악의 법이라며 해악을 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평등법(H.R.5)은 △유치원에서부터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고,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이나 실습하도록 장려할 것 △공립학교와 일반 사업체 뿐 아니라 교회나 기독교 학교, 단체들까지 성소수자 직원의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할 것 △남자아이들이 여자 트랜스라고 하면, 여자 아이들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밤샘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심대들에게도 호르몬차단제, 절단수술, 화학 및 외과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학부모의 의견 없이 제공할 것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는 “이 법안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온 교민에게 알려 최선을 다해 법 제정을 막아야 할 무서운 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등법저지운동본부는 대표회장에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를 추대했다. 실행위원장으로 강순영 목사, 공동위원장으로 샘신 목사, 사무총장으로 강대광 목사 등이 활동하기로 했다. ▲문의: (310)995-3936, (213)215-6029, (323)578-7933

(정리: 박준호 기자)



성서장로교회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본받을 사명...복음 전파

성서장로교회 설립 52주년 기념행사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 설립 제52주년 기념행사가 3월 14일 오전 11시 본 교회에서 열렸다.

김병용 목사 사회로 열린 설립감사예배는 김영균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찬양대 찬양에 이어 나민주 목사(4대 담임)가 설교했다.

나 목사는 고린도전서 빌립보 1장 12절-18절을 본문으로 “본받을 사명”이란 주제로 “우리 성도들은 선택 받은 민족이

라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찬양을 한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위한 사도였고 선교를 위한 귀한 종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던 훌륭한 종이 다. 우리 성도들도 사울을 본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훈순도 목사의 축도로 마친 뒤 성도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교회에서 준비한 케이크와 떡을 나누며 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이성자 기자)

교회, 25% 혹은 100명이하 실내수용 가능

LA카운티 레드단계 진입, 식당 등 실내영업 재개

LA카운티에서 약 8개월 만에 식당 실내영업이 재개됐다. LA 카운티 공 보건국(LACDPH)은 11일 다음 주 경제활동 2단계인 '레드' 단계 진입을 앞두고 실내영업 허용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주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실내영업 중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보건국은 레드단계 진입에 따른 LA카운티의 본격적인 실내영업 재개는 15일 자정부터 17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취약 지역 200만 도스 백신 접종 목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LA카운티는 15일 자정부터 실내 영업을 재개했다.

보건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기존 캘리포니아 주 정부

가 규정한 레드단계 가이드라인에 더해 특히 식당 실내영업에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추가됐다.

식당 실내영업의 경우 수용인원 25% 이하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단, 테이블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에는 가족 등 한 가구끼리만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보건국은 명시했다. 또 냉난방 및 환기장치는 정상 가동돼야 하고 식당 실내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와 얼굴가리개가 배포돼야 한다.

특히 보건국은 식당 실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외 실내 영업지침에 따르면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를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3월 29일(월)부터 4월 4일(토)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월-금 새벽 5시30분, 토 새벽 6시이며 강사는 한기홍 목사다.

▲문의: (714)446-6200

월드미션대학교 학술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2021년 봄학기 학술세미나가 23일(화) 저녁 7시 30분(미서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재난과 선교: 코비드로 다시 보는 대위임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조셉 선교사(인터서브코리아 대표)가 강사로 참가한다.

▲문의: (213)388-1000

감사한인교회 설립38주년 기념예배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예배가 21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714)521-0991

2021년 KAPC 목사장로기도회

"기도해야합니다" 22일-23일 서부시간 오후 1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목사장로기도회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주최로 3월 22일(월)-23일(화) "기도해야 합니다"의 주제로 열린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Zoom)으로 진행될 본 기도회는 첫날 사회 조문철 목사, 기도 임철성 목사, 말씀 조문휘 총회장, 기도회 인도 송일용 목사가 맡는다. 조문휘 총회장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단 6:10)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다. Zoom ID 830-8967-2018(Password 0691).

하오일은 김성일 목사 사회, 광덕근 목사 기도, 오세훈 부총회장 설교, 기도회 인도 이윤석 목사. 오세훈 부총회장은 '목회자를 풍성케 하는 기도'(빌1:9-11)의 제목으로 설교한다. Zoom ID 883-7878-7206(Password 0691). 시간은 동부시간 오후 4시, 서부시간 오후 1시. 자세한 문의는 총회교육부서기 김성일 목사(760-220-3263)에게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4월17일 '트라우마와 힐링' 컨퍼런스

KFAM, 한인정신건강실태 및 지원 기자간담회

KFAM 한인가정상담소는 16일 오전 11시 정신건강 상담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캐서린염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심리상담부 안현미 매니저는 "지난 3년간 상담소 내담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상이 2018, 2019년은 우울증이고, 2020년은 부부, 파트너간 갈등이 18%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COVID-19가 한인 사회에서 우울증을 증가시켰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부부, 파트너간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부 또는 커플들이 장기간 격리된 채 지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연도별 상위 5가지 증상은



KFAM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발표했던. 상황설명과 통계발표를 한 스태프들.

2018년, 우울증(28%), 부부, 파트너간 갈등(19%), 불안증(12%), 부모-자녀 갈등(9%), 외상후증후군 관련장애(2%) 순이고, 2019년 역시 같은 순으로 우울증(21%), 부부, 파트너간 갈등(13%), 불안증(10%), 부모-자녀 갈등(6%), 외상후증후군 관련 장애(4%)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은 부부, 파트너간 갈등(18%), 우울증(17%), 불안증(12%), 부모-자녀 갈등(9%), 외상후증후군 관련 장애(5%) 순이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한 집단트라우마를 안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년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생활의 리듬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라우마 스페셜리스트인 제니퍼오 부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한인가정상담소는 트라우마 컨퍼런스 개최와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고통 받는 한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정상담소는 오는 4월 17일 '트라우마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제 1회 한인정신건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인상담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이미리 홍보담당(직통 213-235-4848, 핸드폰 619-623-0909)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예장고신, '대면예배 금지' 헌법소원 동참

교단 최초...정부에 예배 금지 철회와 사과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진행하는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개교회가 헌법 소원에 동참한 적은 있지만 교단이 참여한 건 처음이다.

예장고신 산하 약법저지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동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헌장에 배제한 및 금지 명령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예장고신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교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헌법소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장고신은 이날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고신 교회와 한

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며 "지난달 1일 방역당국 관계자가 '지금까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에 대해 비대면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탄압이라 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 소그룹 모임 역시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예자연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예자연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는 그간 형평성을 잃은 방역대책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예배방식 규제 등 종교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에 집단감염 종교시설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예자연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집단감염 원인을 분석하면서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했다"며 "전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신천지는 일반 종교시설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를 종교시설에 포함해 방역수칙 강화 근거로 삼은 건 국민들로 하여금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게 하는 착시현상을 갖게 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부활주일에 코로나소멸 위해 한마음 기도를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 3분기기도 등 기도제목 제안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기도운동·대표 윤보환 목사)이 다음 달 4일 부활절에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 세계 부활절 한마음 기도 행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도운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크로스로드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교인들이 부활주일 예배 때 '코로나19 소멸 기도회' 순서를 넣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

다. 기도운동은 '사순절 기간 매일 3분 기도' '고난주간 중 3일 금식기도'도 권했다. 기도운동은 기독교인의 회개와 환자·의료진의 건강,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 세상의 평화 등 기도 제목도 소개했다.

윤보환 목사는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코로나19가 소멸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멸 기도를 촉구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동성혼 허용하려는 법"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 철회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철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대표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을 기만해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합신동성애대책위는 9일 서울 송파구 거마로 남 의원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허성철 목사는 "개정안은 차별금지

법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간 혼인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목사는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 규정인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란 부분을 삭제한 점과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을 추가한 부

분"이라며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

성혼을 가족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하도록 성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혼,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과 반대를 법에서 차별로 규정해 버리면 이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민에게 동성혼 수용과 정당화를 강요하는 동성혼 전체주의 독재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허 목사를 비롯한 합신동성애대책위 소속 목회자들은 의원 사무실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교회가 코로나19 공포 치료하고 사회화합 선도하자"

한교총, 대표회장 명의로 목회서신...한국교회에 협조 요청

한국정부가 지금보다 일부 완화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 중임에 따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10일 한국교회에 철저한 방역 준수를 재차 강조하며 문단속을 독려했다.

한교총은 이날 대표회장 명의의 목회 서신에서 "방역 당국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면서 일부 완화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교회의 협

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안전한 대면 예배를 소망하는 모든 한국교회는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함으로 정부 신문고와 지역사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 교회에 "교회를 통해 확산이 이루어지면 다른 교회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조급한 더 조심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접종을 시작한 백신을 두고서도 방역 당국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접종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대표회장단은 "백신 접종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이에 동요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표회장단은 "우리는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소멸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교회가 자리한 그곳에서 사랑과 이해, 포용과 평화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청했다.

한편 세계총 산하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천만인서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모)'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발표했다.

기고문은 이미 한국에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대한 19가지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에 제정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세기총)

미안마위한 정오기도회 부활주일까지 연장

세기총, "포괄적차별금지법 필요 없는 이유" 기고문도 발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미안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 이후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됐던 '미안마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위한 정오기도회'를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연장 진행하기로 했다.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최근 미안마에서는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강경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희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미안마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신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미안마의 시민들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세기총 미안마 지부장

김○○ 선교사는 미안마 사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나라 전체가 인터넷이 끊어져 외부와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이런 시국이 빨리 해결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며 한국교회와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세기총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미안마가 신속하고 평화롭게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미안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의 안전을 위해 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



기독교사학법인 '사학법 개정' 대응위해 연대

미션네트워크, 교육청 허가 받아 5월 창립총회 계획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움직임으로 위기를 맞은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이 기독교학 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칭)는 1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준비위원장인 이재훈 은누리교회 목사는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사학 법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이 초기 건학이념으로 돌아가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한국교회도 기독교사학 공동체와 함께 다음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서울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이르면 5월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동학원 이사장인 이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예말학원), 영락교회 김운성(영락학원·대광학원·보성학원), 오룬리교회 목사는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사학 법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이 초기 건학이념으로 돌아가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한국교회도 기독교사학 공동체와 함께 다음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서울

인들이 모여 연합체를 구성한 건 1885년 조선에 입국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근대 기독교학교인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을 설립한 이후 처음이다.

미션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21대 국회에 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기독교사학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온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가 제안했다. 기정추 위원장인 김운성 목사는 이날 "기독교사학이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기독교사학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지키고 기독교사학 발전의 중심이 돼야 할 연합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 교수와 박 교수는 지난해 기정추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태아 생명은 정쟁 대상 아냐"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입법논의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관련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고 있는 가운데 64세 시민단체 연합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은 무고한 태아의 생

명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연초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각종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 완전폐지안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률가들은 국회가 계속 낙태죄 논의를 피할 수 없으며 헌법불합치로 인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태아의 생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정당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명시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낙태죄 논의를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 9월 23일에 휴거 있을 것"

유튜브 채널 '영원한복음', 전형적 시한부 종말론 경계

유튜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퍼는 최모씨에게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씨는 구독자가 4만7000여명인 '영원한 복음' 채널을 운영하며 2027년 예수 재림과 휴거를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8일 '큰 표적과 휴거'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경 본문 구절과 올해 별자리와 태양계 행성의 위치, 교회 절기를 비교하며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올린 영상에선 2027년 9월 23일 예수가 재림한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칭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별을 따라 예수가 태어난 곳을 찾게 하신 것처럼 재림에 관한 비밀도 별의 움직임을 통해 숨겨 뒀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유신 안산제일교회 협동목사는 11일 "성경 어디에도 재

림과 관련된 별 이야기는 없으며 성경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나 공통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도 다루고 있지 않다"면서 "전형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2017년과 2020년도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추종자는 2017년 필리핀에 가서 휴거를 기다렸다. 두 번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휴거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 서울상담소장 이덕술 목사는 2017년 최씨 추종자의 가족과 상담한 경험이 있다. 이 목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기다렸던 휴거가 안 와도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원하는 등 뉘가 계속 이어가려는 습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지만, 어느 교단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나 안식교 계열이라고 의심한다. 최씨가 유튜브에 밝힌 이메일 주소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은 없었다.

박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대세가 되다 보니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 문제"라며 "한국교회가 교인들에게 건전한 성서해석을 바탕으로 한 요한 계시록을 공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블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도 "잘못된 종말론은 구원론을 왜곡하고 두려움을 조성해 가족과 이웃을 떠나게 만든다"면서 "현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현세를 잘 살아내게 하는 건강한 관점의 종말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콘텐츠 개발 나서...다음세대 양육에 집중

기감, 미래교육콘텐츠개발원 설립

기독교대안관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미래교육 콘텐츠개발원(원장 박동찬 목사)을 설립하고 다음세대 양육에 교단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감 교육국(총무 김두법 목사) 협력기관인 개발원은 지난 4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개발원은 교회교육은 물론이고 기독교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며 공모전도 진행한다. 특히 기감 소속 교회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직접 제작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영상제작 장비 등도 제공한다. 제작 양육과 소그룹 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와 리더십·인성교육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는 10일 "특정 교회가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만드는 교회교육 콘텐츠들은 감리회 산하 교회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코

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크리스천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영상 의존도가 높은 Z세대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법 목사도 "코로나19로 시기가 앞당겨진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원을 설립했다"면서 "감리회 산하 교회들의 교회교육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풍성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36)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9. 다른 사람 섬기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다. 우리 자신의 계획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바울은 우울해질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했

고, 그의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를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29:11-14). 하나님께서 지역사회나 교회, 혹은 선교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를 주셨으므로 자원하여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일을 하고 당신을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1-8)라고 말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격려하는 말이라, 당신이 가진 자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든 간에 당신이 받은 은사로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지 찾으라.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이 받은 것을 남과 나눔에

져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다시는 우울증의 구덩이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을 찾았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따라서 나는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기도: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꿈과 비전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 받은 은사를 바로 알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 알게 도와주세요. 제가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삶에 의미와 목적 찾을 수 있어 하나님은 고통 경험도 사용...과거 실수에 집착 말아야

아야 한다. 그분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므로 주님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여쭙 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서부터 온다.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한 고통도 사용하신다. 치유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우울증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우울증과 슬픔,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빠

확장에 힘써 일하게 도와주세요. 저를 돕는 사람과 연결되어 받은 은사를 주님께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의 기쁨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yonghui.mcdonald@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4강 /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창4, 5장)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의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보안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죄인들의 삶의 여정은 이 세상에 속한 정육의 열매들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2:15,16).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쌍방 언약의 불가능함이 드러났기에 이제부터는 일방언약 즉, 은혜언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은 타락 후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할 메시아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언약'(창3:15)을 시작으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증표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창9:8-17),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핏붙언약(창15:7-21),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통해 하나님 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는 할례언약(창17:9-14),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람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땅과 자손을 보장하시겠다는 사닥다리언약(창28:13-15),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신 시내산 율법언약(출19:1-20:21) 등을 거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맺을 피 언약의 예표로서 주신 새언약(렘 31:31-34)을 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언약(마26:26-29/막14:22-25/눅22:14-20)을 지나 보혜사언약(요14:16,26, 15:26, 16:7-15) 그리고 재림언약(마25:31,26:64/막14:62/눅21:27/요14:2,3/행1:11)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언약이라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 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 에덴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

나님의 명령이며 그 첫 번째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히11:4).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 삶의 우선이 된 자들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자세입니다(시51:16,17/잠21:2/호6:6).

가인의 선택, 세상의 결정

1.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가짐과 자세 때문이었지 가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가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죄가 너를 잃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7)고 하셨음에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바로 죄의 형벌을 주지 않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4:9)고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 결국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위해서라면 동생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도 죽일 것입니다(왕하3:27).

의 풀이 잠시 무성하다 때가 되면 사라지듯이(시92:7, 103:15/사 40:7, 51:12) 안개와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약4:13,14/벧후2:17).

아벨의 자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

1. 에녹과 라멕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힘과 화려함을 자랑했다면 아벨의 자손, 셋의 자손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창5:6-20).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작과 끝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신32:10/시17:8).

2. 셋의 자손에서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본 뜬 성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

신의 삶을 살며 두 명의 부인을 통해 얻은 아들들을 통해 세상의 부와 향락과 힘을 누리다 안개와 같이 지나갈 라멕과는 달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창5:29)고 하며 아들 이름을 노아로 지은 라멕이 등장합니다. 같은 세상에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드러낼 것입니다.

1. 성경은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하고 무가치해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 마치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2. 성경은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을 즐기는 자들의 삶이 잠시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또한 드러내실 것입니다.

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바로 그 광야에서 '보안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시하는 사단의 유혹, 그 시험을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것입니다(마4:1-11).

이제 성경은 이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았음에도(출18:9/레11:45)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을 가며 끊임없이 이 세상 애굽을 잊지 못해 돌아가려는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실 것입니다(출14:12/민14:4, 16:13, 20:5).

그리고 그들의 불가능한 삶이 커질수록 구세주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며 그 구세주의 단면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서서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계속 이어 집니다.

hfamilyfa@gmail.com

아담과 하와로부터 쌍방언약 불가능해 일방언약-은혜언약으로 이어져 에덴 이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세상 왕으로 사는 자들 대조적

은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대조하며 드러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1.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두 번째 아들로 양 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담으로부터 에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라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임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 뿐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 뿐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창4:4,5).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창4:4,5).

2.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출23:19/잠3:9/느10:35). 첫 번째 것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

니라”(히11:6).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히11장).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 제사라는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제물이 무엇이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있는 자는 바른 제물을 준비할 것이고 바른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바른 위치, 바른 자세에서 나온 최선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최고의 제물이 아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인의 자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

1. 가인은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창4:16,17). 자기중심, 자기를 중시합니다.

2. 가인과 에녹의 후손으로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는 두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두었는데 세상의 부를 상징하는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된 야발과 세상의 향락을 상징하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유발, 힘과 전쟁을 상징하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열정을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3. 성경은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화려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창4:16-24). 그들은 들판

던 가인의 자손 에녹과 다르게 아들 므두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되어 살다간 셋의 자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는 '말망'의 의미를 가진 그의 아들 므두셀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5:24).

3.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아들 므두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히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므두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창5:25),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며(창5:28,29)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창7:6). 바로 므두셀라가 969세에 죽던 해입니다(창5:27).

4. 또한 셋의 자손에서도 라멕이 등장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창4:24)고 외치며 자기중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알곡을 모으시는 인자(계14:14-16)찬161장

구속사는 인자의 추수로 마쳐집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인자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째, 인자는 누구입니까?(14)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스테반의 순교 때나(행7:56) 사도요한이 주의 날에 본 그 분은(계1:13)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그는 구속을 마치시는 분이심이 강조되었습

니다. 둘째, 성전에서 나온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리한 낫을 든 인자는 성부의 명령을 받들어 세상을 심판합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추수하는 일입니다(15). 셋째, 그 명령을 따라 추수가 완료되었습니다(15).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도 빼집없이 구원하시는 인자는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화 불택 자의 징벌(계14:17-20)찬469장

알곡을 모으시는 구원과 대조되는 포도송이의 추수는 불택자의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이 가득 할 때 인자는 어떻게 심판을 단행하십니까? 첫째, 포도송이의 추수와 같이 하십니다(17-18). 포도송이는 불택자를 가리킵니다. 오래 참으시는 인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불택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시오로 자신의 의를 세우십니다. 둘째, 진노의 큰 포도주통에 던져집니다(19). 하나님의 심판방법을 비유한 이

것은 죄에 대한 죄책, 형벌, 죽음이 너무 처절한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불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20). 죄에 대한 형벌이 사실적이므로 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징벌에서 자유를 얻은 인자의 백성이니 그의 구원으로 인해 주를 찬양합니다.

수 모세의 노래(계15:1-4)찬82장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대접을 쏟기전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첫째, 어린 양에 속한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2절,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기고 심판사역에 참여해 거문고를 갖고 구속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일찍이 천상예배에 24장로와 천군천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계4:11). 둘째, 모세의 노래는 어린양의 노래

이며 한마디로 구속의 노래입니다. 전능자가 이루신 구속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를 영원한 노래입니다. 셋째, 주께만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왕권이 행사됨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역시 이 노래를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입니까?

목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계15:5-8)찬363장

그 구원은 동시에 영원한 심판을 알립니다. 임위를 가진 천사가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대접 재앙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입니다(5-6). 불의에 대한 최종심판으로 의를 세상에 들어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7). 둘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8).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은 연기로 상징한 의가 충만할 때 참여배가 완성됩니다. 셋째,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쏟을 수 있는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세우심을 뜻합니다. 구원과 함께 진행되는 심판은 의로 충만한 상태를 이루심으로 그의 경륜을 완전히 마치십니다. 교회는 이 과정을 통하여 넉넉한 구원으로 참여 배자가 됩니다. 이날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금 첫째 대접(계15:1-2)찬488장

첫 재앙은 인간과 생물의 활동 주대인 땅에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에 생겼습니까? 첫째, 그것은 땅에 쏟아졌습니다(1). 제한된 공간인 땅에 쏟아져 고통이 날이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이 고통으로 땅에 있는 인간은 돌로 나뉘져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들어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만이 이 고통의 때를 이깁니다. 둘째, 짐승표 받은 자와 우상숭배자에게 임합니다(2). 구

체적으로 불택자를 명시함은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고통의 징벌을 이 땅에서도 반드시 당합니다. 셋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2).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아픔이 일어나는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성도는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의 구원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토 둘째 대접(계15:3)찬351장

재앙이 바다에 쏟아지는 일은 생존의 원천을 해치는 일입니다. 앞서 말한 일곱인과 일곱나팔 재앙에 이미 언급한 일이 반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존터전인 바다의 파멸은 큰 참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바다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케 한 것처럼 큰 재앙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는 신약의 은혜와

대조되는 피를 증거로 보인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의를 세우시는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셋째, 모든 생물이 죽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재앙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피해를 당하게 함으로서 이 세상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는 열심을 따라 있는 거기에 신실하게 주를 섬기십시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5)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여러 교훈들 중 하나는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시험을 당했지만 한번도 그 시험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이를 정정당당하게 대면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시험이 오면 편법으로 대처하거나 미리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드는 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정면으로 응대했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모든 시험에서 승리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초조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험이란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급과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사람도 없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단 2:10-11).



이희갑 목사

(아주사파서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다니엘서는 어려운 시험 앞에서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크게 축복하시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니엘 각 장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하는 시험을 보자. 1장에서 나오는 음식에 관한 시험, 2장에는 느브갓네살의 꿈과 이를 해석해야 되는 시험, 3장에는 금신상 숭배를 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불에 던져지는 시험, 4장에는 벨사살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다니엘의 시험, 5장에는 벨사살왕 때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야 하는 다니엘의 시험, 그리고 6장에는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다니엘의 시험에 대해

맞는 말 아닌가? 꿈을 모르는 데 어찌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왕은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는 그때에 10대 후반의 나이인 다니엘이 등장한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꿈과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야기한다. 필자가 감동한 것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단2:15)라는 다니엘의 말이다.

위험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평생을 현자로 살아온 갈대아 술사들이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허둥댔던 것과는 달리 놀랍게도 정제되고 침착한 18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시간을 주면 다니엘을 왕의 꿈을 알 수 있다고 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모든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감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시험에 다니엘은 100% 합격을 하고 점점 더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자리로 승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감이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고 신뢰했고 굳게 지켰던 것이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또 하나의 심각한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다니엘서 2:1에는 느브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브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한다. 이때가 느브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후 약 4년이 지난 후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이다. 즉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와 3년간을 왕궁에 살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은 후 공직에 임명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보여진다.

또 다시 지난 호에서 언급한 비결로 돌아가자. 그건 정체성이었다. 갈대아 술사들과 다니엘의 차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 왕의 꿈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신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음(단2:11)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니엘 처럼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라는 괴물이 우리의 삶을 핍박하고 있어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물론 그렇다.

세상은 더 나빠지고 악이 창궐해지고 기독교 가치가 점점 압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적어도 다니엘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이 다니엘에 비해서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영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자.

다니엘은 어릴 때 이방인을 섬기며 자신의 나라를 축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히 깨부셨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다.

(16면으로 계속)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사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올해는 저희가 헝가리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그때 저희 부부는 33살, 34살 이었는데,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일을 웃으며!"(잠31:25) 훗날에 웃자! 나중에 웃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날에 웃을 수 있도록 살자!

사실 30년 동안에 힘든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시며, 저희를 검증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국에서 주인처럼"(두란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규장) "네 인생의 한 쿼터"(에영커뮤니케이션), "나도 존중받고 싶다"(두란노) 네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일인 오늘도,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도, 주님 앞에서 저희가 웃을 수 있도록, 계속 새깁니다. 후일을 웃으며!

현재 저희가 웃을 수 있는 바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과 기도, 성도(가족도 성도), 루틴 사역입니다.

1)"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시편 119:92). △헝가리어 성경 필사: 지난 10월부터 신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요한1서' 4장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에 제약과 제한이 있어서 오히려, 헝가리어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매일 세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각자, 오전 11시에는 헝가리어로, 저녁에는 모국어로... △매일 동네 한바퀴 '걸으며 기도하기'(Walking Prayer)! 4km 며,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2)"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시16:3).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녀와 부모, 형제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으니, 헝가리 땅, 한국 땅,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세상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한번 한번 생각할 때, 감동-감사-감

격이 있습니다.

△저희 "Só Világosság(소금과빛개혁신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주일예배와 급식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리이요쉬(신디사이저, 싱어), 엘리클라리넷, 신희선(피아노), 로베르트(간편 드럼, 북)

3)"반복을 성실히 할 때, 행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8). △부다페스트 남부역 '거리교회'는 수요일, 현재는 예배당 밖에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봉쇄령을 해제하면 다시

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다섯 가정: 아미, 메르쥬/언지/키쉬 아미/알렉스, 산도르, 샤론/요지, 멜리사, 다비드 △요셉 아탈라 고아원(보육원)의 아이들: 키아라, 케빈, 비앙카 △교사 자녀와 그의 아이들: 에녹, 마차쉬/롤란드, 에브린, 케빈2 △삼가는 자들: 피테르 전도사, 원선미, 최하은, 피로슈키, 로베르트 선생, 저희 부부

새 봄이 왔습니다. 계절 중에 새롭다는 새 자를 붙일 수 있는 시기, 새 봄! 영어로는 '행진(March)'이지요. 매일 루틴을 성실히 하나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남부역으로 나가 예배와 급식을 할 것입니다.

4)"어린이는 내일의 지도자가 아니다. 오늘 오후의 지도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마19:14). 비록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다루기가 무척 힘든 시대이지만,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지난 2월 21일 주일학교 다섯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주의 일꾼,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

믿음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헌금의 미션!'을 부족한 저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과분하고, 황송하며,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함과 은혜 앞에...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8.가정교회 목회자 십계명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모는 이 가정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가정교회의 목회자인 부모에게 는 자녀를 위한 좋은 목회자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1.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의 인도자 되심을 알게 하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길잡이, 안내자, 인도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아 사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어라.
자녀들은 모방의 천재들이다. 백마디 말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아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 본보기를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새벽기도와 가정예배가 가정교회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영적 기쁨과 간증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7. 가까운 주변에 간증집과 신앙서적을 준비해 두라.
현대는 찬송가와 성경책을 갖고 다닐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로 비추우고, 아이폰 등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Facebook, Twitter 등의 대중매체로 다 통하므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어른들이나 자녀들이 읽을 간증집과 신앙서적을 가까운 주변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8. 주일학교와 각종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라.
가정의 교사, 가정교회의 목회자로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주일학교(Sunday School)의 각종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적극 참

부모는 가정교회의 목회자...자녀 위한 좋은 계획 있어야

기본임을 일깨워 주어라.
새벽기도와 가정예배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 죄악의 온상 가운데 던져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미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4. 식사시간 전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낭독과 기도를 하라.
말씀은 영적 싸움의 최고의 공격무기이고, 기도는 최고의 수비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 성장의 두 날개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입니다.

5. 주일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린다.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는 가족과 가정의 구원입니다. 선교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가정입니다. 온 가정이 복음화 되고 함께 주일예배, 주일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며, 비전이십니다.

6. 가정에선 가능한 한 영적 기쁨과 간증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회개와 죄사함, 기도의 응답, 변화된 내 모습,

여토록 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9. 헌금생활을 어려울 때부터 철저히 교육하라.
헌금은 천국은행(Heaven Bank)의 내 통장(Account)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와 외상이 없으십니다. 엄청난 이자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심일조는 축복의 조건이 됨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10. 말씀암송을 일생의 과업으로 지도 하라.
인터넷의 포털사이트(Portal Site)에 많이 입력(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열여볼 수 있듯이 말씀도 많이 암송하여 우리 마음판(심비)에 새겨놓고 입력해 놓으면 기도의 응답으로, 이단과의 논쟁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3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사별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목회,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54)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다속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54)542-0288, Fax. (254)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전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c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2021년 고난주간 끝나지 않은 펜데믹 가운데 더 경건의 자세로..

고난주간이다. 온 세상이 온통 코로나19에 빠져 정상적 삶의 세계가 울스름했다가 백신접종으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색이 밝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완화돼 거의 1년 만에 식당이나 놀이공원 등을 갈 수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

이처럼 온 세상이 다시 들뜨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다.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골고다에 오를 때, 따랐던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곡이 아니라 십자

가로 드러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 송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고난주간(the Passion Week)을 어떤 사람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과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부활을 통해 승인됐기 때문이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마음의 옷깃을 좀 더 단단히 여미고 말씀묵상과 기도예배에 정성을 더욱 더 쏟아야 한다. 과연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가라는 물음으로, 십자가 앞에 진솔하게 다가가야 한다.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돌을 던졌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준 구레네 시몬, 처형을 감독하던 백부장이 그런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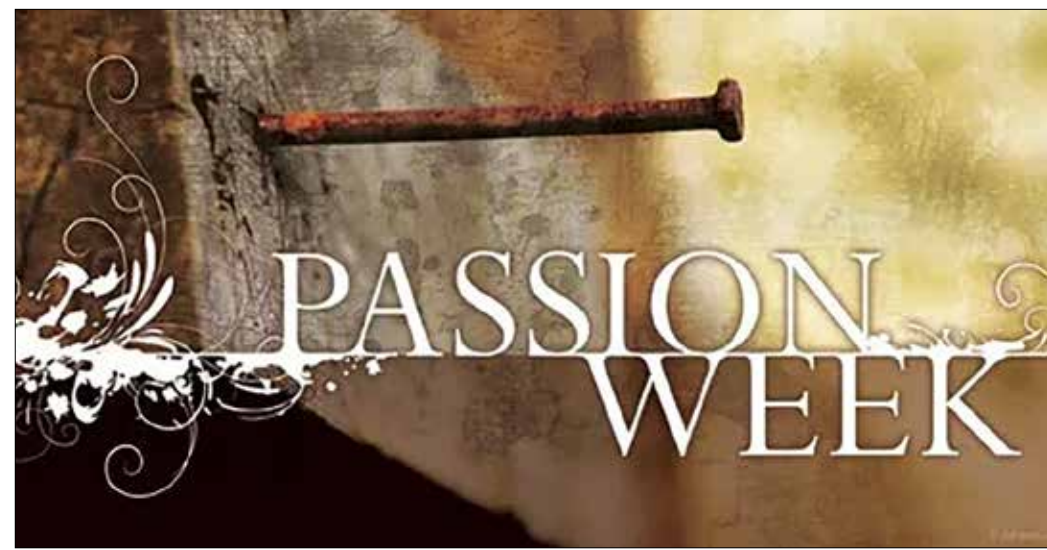
먼저 구레네 시몬을 살펴보자. 마가복음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소개한다(막15:21). 사실 그는 역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

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학자들은 골고다의 경향 후 구레네 시몬이 크리스천이 됐고, 가정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한다. 역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주님과 함께 걸었던 짧은 시간이 그의 삶을 바꾼 것이다.

백부장의 경험도 특별하다. 그때 그는 십자가형을 감독하고 있었다. 본의 아니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죽음을 봐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마가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의 고백을 이렇게 기



말씀과 묵상으로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십자가 구속역사 선포하고 구원하신 사랑 기억

록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

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막15:39). 고난주간에 은혜와 역사하심

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묵상해야 한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 옆으로,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야만 한다. 이날에 참여하는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는 곁에 다가선 사람을 주님의 제자,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고난을 겪는 것만큼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경험은 거의 없다. 환난이 닥치면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어떤 이들은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나, 어떤 이들은 그분을 저주한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앞드려 깨어진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나고 만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분명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개인이 고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고의 순간을 나아가는 도적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꿈을 죽이는 암살자도 아니며 아무에게나 무기를 겨누는 광인도 아니다.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선포하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갈 때,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되게 된다.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2021년 고난주간은 주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돼야 한다.

있을 정도로 우리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KPCA 뉴욕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0면에서 계속)
임원교제 후에는 신임 노회장 주영광 목사가 직전 노회장 노성보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날 허락된 현의안 청원은 △뉴욕한민교회(주영광 목사) 교회명칭 변경(넘치는교회) △뉴욕한민교회 김성수 전도사 목사고시 추천 △예수반석교회(김원진 목사) 이전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유명근 전

도사 목사고시 추천 △캠브리지 연합교회(김영호 목사) 김성준 전도사, 최광현 전도사 목사고시 추천 등이다. 이날 이동홍 선교사(니카라과)가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선교회연합회도 참석해 여선교회 모임이 지속되도록 후원을 요청했다. 뉴욕노회는 3개 시찰에 26교회, 목사회원 46명, 장로회원 16

명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한부모가정사역

(8면에서 계속)
예수님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때로는 아주 무섭기도 했는지? 물속에 빠져 들어가던 겁에 질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신 것처럼 너도 도와주시고 너를 떠나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 속상하거나 슬플 때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생각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감사할 일을 같이 헤아려 볼까? 생각보다 꽤 많지? 언제든 지 네가 우울해 질 때면 이야기 나누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자. hyojungyoo2@yahoo.com

다니엘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부모도 선생도, 람비도 없이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어린 나이에 붙잡혀 와서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옷차림도 달랐던 나라에 버려진 채 지내야 했다. 그 나라는 교회도 회당도 맘놓고 기도할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의 주위에는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은 주술과 영적 타락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가득 차 있었다. 다니엘서 2:2은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기록한다. 마술사를 박수(magicians)라 불렀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대화하는 사람을 술객(enchanters)이라고 칭했다. 점쟁이

(sorcerers)는 점과 주문을 외움으로 사람을 홀리게 하는 자들을 의미했으며, 술사(astrologers)란 천문학과 점성술(갈대아인들이 유목민족이었기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길흉화복을 이야기했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의 집단을 이야기한다.

적어도 다니엘은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자.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외적인 환경과 여건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 환경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런 환경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순간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행동했다. 왕에게 시간을 주면 꿈과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은 은밀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보이셨다(단2:19). 바로 이 꿈이 다니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지침돌이 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은밀하게 보여주셨고 이 꿈은 다니엘에게 일생동안 그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 18살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어찌 알았을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과 예언을 알고 있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주시도록 기도한다.

hlee0414@gmail.com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 중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서류 제출처 및 마감일

- 제출 마감일: 2021년 4월 30일까지
- 모든 서류는 info@mybcpc.org에서 e-mail로만 접수합니다.
- 추천서는 아래 교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